스마트폰으로 듣고보는
뉴욕기독교방송
cbsn 뉴욕기독교방송
www.cbsnewyork.net
718.414.4848
사장 문석진 목사

기독뉴스

기독뉴스는 뉴욕/뉴저지, 서부, 필라, 델라웨어에서 〈씨존〉이 발행하는 주간기독신문입니다

coway
염명재 (Jane Yom) 917-628-6139

제 191 호 / 2025년 10월 30일 www.kidoknews.net NO. 191 / October 30, 2025

기독뉴스, 라파예트에비뉴장로교회에 모금 3,000달러 전달

매칭으로 6,000달러 지원효과

라파예트에비뉴장로교회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마친 뒤 문석진 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뒤편에는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선교사의 형인 존 토머스 언더우드(John Thomas Underwood)의 초상이 걸려 있다. 그는 동생의 한국 파송과 사역을 위해 선교비 모금에 큰 역할을 했다.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치를 세우고 설립된 기독뉴스(발행인 문석진목사)가 10월23일(목) 오전11시 한국의 최초 선교사 중 한 명인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라파예트에비뉴장로교회(Lafayette Avenue Presbyterian Church, Brooklyn)에서 '언더우드 파송 교회 돕기' 모금 성금액 3,000달러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교회 'Opening Doors' 건축 캠페인 공동위원장 데브 하워드(Deb Howard)와 데비 켈로그(Debbie Kellogg) 장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교회의 노후 시설 전반 보수를 위한 'Opening Doors' 캠페인에 지정 기탁되며, 브루클린 Buckhorn Association의 1:1 매칭 그랜트가 적용되어 총 6,000달러의 지원 효과로 이어진다. 교회 측에 따르면 모금은 본당 보수, 본당 내 환경 개선, ADA(장애인 접근성) 기준 충족 공사, 115년 이상 된 파이프오르간 주요 수리에 사용될 예정이다.

〈4면으로 계속〉

사 고

2026 터키·그리스 성지순례 참가 안내

주제: 시대는 변해도 신앙은 그 자리에

"사도행전 선교 신앙의 현장을 걷다"

일정: 2026년 3월 23일(월) ~ 4월 1일(수), 10일

코스: 사도 바울 2차 전도여행 핵심지, 고린도 교회·고린도 박물관, 메테오라 수도원, 빌립보(네압볼리 항·빌립보 감옥·루디아 기념교회), 에베소(두란노 서원·사도 요한 관련 유적), 소아시아 7교회(버가모·두아디라·빌라델비아·서머나·사데 등), 아테네(파르테논·아크로폴리스·소크라테스 감옥·근대 올림픽 경기장), 트로이 목마, 이스탄불, 밧모섬은 현지 사정에 따라 출발 한 달 전 최종 확정

경비: 2,300달러 + 항공권 별도
포함 호텔, 식사, 차량, 현지 입장권, 기사, 가이드
불포함 기사·가이드 팁 1인 100달러

혜택: 순례 사진·영상 USB 제공(문석진 목사 촬영)

예약: 2025년 11월 3일(월)부터 예약 시작
문의·신청 718-414-4848, 718-354-5545

관련기사 4면

2025년 미국 최고의 부동산 프로젝트, 마이애미 월드센터
지금,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JEM 콘도' 60만 불부터

koriny

합리적인 가격대
스튜디오 $600,000부터 시작하는 마이애미 럭셔리 콘도

단기 임대 운영 가능
에어비앤비 합법 허용으로 단기부터 장기까지 안정적인 수익 포트폴리오 확보

최고의 입지
마이애미 월드센터(Miami world center)내에 위치하며, 공항까지 차로 10분, 해안은 10분 거리

럭셔리 어메니티 시설
인피니트 풀, 스파, 피트니스 센터, 코워킹 라운지 등 럭셔리하며 다양한 어메니티 시설 보유

미국 부동산은 코리니 koriny.com
고객 상담 646.322.5120
카카오톡 문의: koriny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정기연주회 성황

불우이웃돕기·선교기금 위해 울려 퍼진 하모니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목 방지각목사·단장 이은숙권사·지휘 양재원교수)은 10월19일(주일) 프라미스교회(허연행목사)에서 불우이웃돕기와 선교기금 모금을 위한 제22회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한국일보 특별후원으로 열린 이날 공연에서 합창단은 작곡가 이가영씨와 작사가 이상윤씨가 쓴 세계 초연곡 '보라 내가 새 일을'을 이가영 작곡가의 객원 지휘로 선보이면서 관람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85명의 단원을 비롯해 피데스 챔버(FIDES Chamber), 소프라노 정은지, 메조 소프라노 박영경, 테너 정현우, 바리톤 차승호, 소프라노 이유이, 메조 소프라노 정세미 등이 함께 무대를 장식했다.

한편 이날 합창단은 공연 후 김인선선교사의 사역지인 니카라과에 학교 교실 1동 건축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10년 근속 단원인 김문옥, 김혜정, 오기순, 유정애(늘기쁜교회) 단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미연회 본부 오픈하우스 예배

선교와 연합의 새 출발

글로벌감리교회(GMC) 한미연회(KAAC)는 9월 16일(화) 달라스중앙감리교회에서 본부 오픈하우스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방현주 목사(웨슬리교회)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예찬 목사(달라스중앙)의 찬양인도, 황철현 장로의 기도, 손태원 목사(텔사한인·한미연회 중부지방감리사)의 설교, 신자겸 목사(달라스교협 회장)와 임훈 목사(가이드스톤 한인 담당)의 축사, 이성철 목사(한미연회)의 축도로 이어졌다.

손태원 목사는 사도행전 2장 29~36절을 본문으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처럼, 한미연회가 성령 충만한 증인의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류계환 총감리사는 "한미연회는 행정단위를 넘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영적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성서적 거룩함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텍사스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한미연회 교회들이 모금한 구호헌금 5만6천여 달러가 Mid-Texas GMC 연회에 전달됐다.

현재 GMC는 전 세계 69개국 5,400여 교회, 6,600여 명의 목회자가 속해 있으며, 한미연회는 2026년 교단총회를 앞두고 이성현 목사(하와이로뎀교회)를 감독 후보로 추천했다.

한미연회는 이번 오픈하우스를 계기로 연합과 선교 사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욕교협, 임원 1년 연임안 임시총회 상정 가결

헌법 제14조 개정안, 임·실행위서 과반 찬성 통과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연행목사)는 10월20일(화) 오전 10시30분 교협회관에서 지난 임시총회에서 보류된 헌법 개정안을 재 논의하기 위한 임실행위원회(속개) 모임을 갖고 임시총회에서 부결된 2건 외의 헌법 개정안을 임시총회에 일괄 상정하기로 가결했다.

허연행목사(회장)는 "지난 임시총회에서 논의한대로 절차상의 약점을 보완하고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절차를 다시 밟아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모이게 됐다"며 "이날 열리는 임실행위원회는 '속개'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가 시작되고 여러 격론이 있었으나, 박희근목사의 의견에 따라 지난 임시총회에서 부결된 회비인상안(150달러)과 평신도 대표 회원권 복구에 대한 건은 부결된 상태로 재확인했고, 임원 연임건에 대한 헌법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할 것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어 총 인원 28명중 찬성18표, 반대10표로 헌법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가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헌법개정안의 핵심은 교협 헌법 제14조다. 14조에 있는 "본회 임원 및 실행위원회 임기는 1년"을 삭제하고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하여 정·부회장의 임기를 1년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속개된 임·실행위원회에서 과반수를 넘어 총회에 상정할 것이 통과됐으나, 다시 열릴 임시총회(10월25일 오후 5시 뉴욕교협)에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함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는 아직 확실한 상황이 아니다.

한편 뉴욕교협은 지난 4일, 2025년 정기총회가 11월6일(목) 오전10시 30분 프라미스교회(허연행목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퀸즈장로교회 새 성전 건축기금 마련 바자회

퀸즈장로교회(김성국목사)는 10월4일(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새 성전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열어 21만 달러의 수익을 얻고 새 성전 건축을 마무리 하는데 힘을 더했다.

바자회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매주 작은 행사로 진행되어 왔으며 대표 인기 품목인 다양한 종류의 김치는 미리 예약을 할 정도로 인기를 더했다.

1층 로비에서는 그림을 전시해 판매하였고,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눈길을 끌었다.

금년 넌 말에 입당 예배를 가질 새 성전은 다민족들이 주로 사용할 예정이며, 다민족들의 사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음을 땅끝까지' 기독뉴스 선교 후원 요청 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마 4:23)

할렐루야. 황폐한 이민 사회 속에서도 목회와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독뉴스는 2009년 창간 이래 종이신문, 뉴욕기독교방송(CBSN), 유튜브, 카카오 채널, 이메일 뉴스레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지역 교회와 선교 단체를 연결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독뉴스의 사명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지역 교회와 선교 현장의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하고,

신앙의 시선으로 시대를 해석하며 다음 세대에 복음을 잇습니다.

왜 지금 후원이 필요합니까

현장 취재, 제작, 방송 인프라 유지 등 사역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 교회와 선교지의 소식을 널리 전하기 위해 안정적인 정기후원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기독 언론의 지속은 곧 교회와 선교를 지키는 일입니다.

후원 안내

Chase Bank 계좌 260896639

Zelle: kidoknewsNY@gmail.com

| Venmo/PayPal: @Czone-US

(모든 후원에는 연말 세금 공제용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교회와 선교지의 필요를 섬기며, 모든 과정 위에 주의 보호와 공급이 함께 하소서.금액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와 정성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문의 718-414-4848

기독뉴스 드림

코리니, 미주 한인 대상 '한국 부동산·역이민 원스톱 서비스' 론칭

부동산·금융·세무·정착까지 통합 지원… 한·미 교류 확대 기대

미국 부동산 전문 플랫폼 코리니(Koriny)가 미주 한인들을 위한 한국 부동산·금융·세무·역이민 원스톱 서비스'를 공식 론칭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4년 약 132만 명의 미국 국적 방문객이 한국을 찾았으며, 이 중 10~20%인 13만~26만 명이 미주 한인으로 추정된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한국 내 투자와 정착, 역이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관련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리니는 ▲한국 부동산 취득·매각 ▲금융·세무·법률 컨설팅 ▲역이민 정착 지원을 포함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객은 미국 현지에서도 안전하게 한국 내 부동산 거래와 정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단순 중개를 넘어 주거·금융·법률을 포괄하는 종합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코리니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 및 전문 기관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시차나 거리의 제약 없이 실시간 정보 제공과 투명한 거래를 지원한다.

코리니 문태영 대표는 "매년 약 20만 명의 미주 한인들이 가족 방문과 비즈니스, 투자 등을 위해 한국을 찾고 있다"며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역이민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원스톱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나바선교회, 선교사 후원금 전달

평신도 선교단체인 바나바선교회(지도 임선순 목사·회장 송수경권사)는 10월 5일 거성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선교사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선교비를 전달받은 선교사는 니카라과 이동홍선교사, 이재경선교사 등이다.

이날 회원들은 볼리비아 윤도근선교사와 니카라과 이동홍, 김인선, 이재경 선교사, 씨존 문석진 목사의 선교보고를 청취했다.

한편 바나바선교회는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중국, 일본, 뉴욕, 네팔, 볼리비아, 니카라과, 멕시코, 파라과이 등 해외 선교지와 뉴욕기독교방송(CBSN) 등 다섯 곳의 사회 단체 및 기관을 후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3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그레잇넥교회, 창립 48주년 기념 건강세미나 개최

의료진 참여 '1Day Health Clinic' 함께 진행

뉴욕그레잇넥교회(담임 양민석목사)는 창립48주년기념 건강세미나 및 1Day Health Clinic을 개최한다.

양민석목사는 "본 교회의 전문 의료진들은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한방과가 있으며 간호사 8명이 함께하고 있다"며 "이번 건강세미나 및 1Day Health Clinic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강의도 듣고 무료 검진을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건강세미나는 10월18일(토) 오전10시 김민지박사(소아과)를 강사로 초청해 부모와 아이를 지키는 예방접종(이해)이란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10월19일(주일) 오후1시30분부터 2시10분까지 박성진한의사(체질 및 식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체질에 대한 이해와 식이요법이란 주제로 강의한다. 강의 후 질문과 답변 시간이 있다.

계속해 2시10분부터 4시30분까지 진단 및 치료를 실시한다.

진단 내용은 혈압체크, 현재 혈당 체크, HbA1C(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치), BMI(몸무게/내 몸의 지방, 근육, 물의 비율), 콜레스테롤 체크, 적외선 치료 등을 실시한다.

단 진단 진료와 치료를 원하는 분들은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마감은 10월15일(수)이다.

전화문의 및 신청은 917-710-4992 의료팀 총무/교회 516-570-6371(메시지 남길 곳) 등이다.

UMC한인총회 신임 총회장에 권혁인 목사 선출

"경청과 배려로 함께 걸어가는 총회 만들 것"

미 연합감리교회(UMC) 2025년 한인총회가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뉴저지에서 열렸으며, 신임 총회장에 권혁인 목사(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가 선출됐다.

권 목사는 공천위원회의 단수 추천을 받아 만장일치로 인준되었으며, "경청과 배려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총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가주 출신 첫 총회장으로, 세대·지역·문화의 차이를 조율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세계선교부와 협력해 해외 선교사 지원을 강화하고, 한인교회와 평신도 연대를 위한 회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세대 지도자 발굴과 재정 기반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을 통해 타인종 목회자, 여교역자, 영어권 2·3세대의 참여를 확대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현재 미주 내 240여 한인교회와 850여 명의 목회자가 사역 중이며, 총회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사명과 신앙의 본질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방지각 목사·변종덕 장로 감사예배 드려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상임의장 김용걸 신부)는 10월 11일(토) 산수갑산2 연회장에서 방지각 목사 구순 및 변종덕 장로 결혼 6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김용걸 신부는 "두 분은 한인 사회와 교계의 귀감"이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건강과 장수를 누리시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예배는 손성대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동현 장로의 특송과 허연행 목사(뉴욕교협 회장)의 설교가 이어졌다. 허 목사는 시편 90편을 본문으로 "인생의 덧없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한다"며 "두 분의 믿음과 헌신이 귀한 본이 된다"고 전했다.

2부 축하 순서에서는 그레이스 멩(Grace Meng) 연방하원의원의 공로장 수여와 축사, 두 분의 감사 인사, 이종명 목사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사랑의 집' 후원의 밤 행사 성황

한인 노숙인쉼터 '사랑의 집'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 5일 퀸즈 하크네시야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기금 모금과 함께 노숙자들이 사랑의 집을 통해 변화된 삶을 참석자들과 나누는 간증시간도 마련됐다.

전모세 원장과 원혜경 이사장, 하봉호 행사준비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자들과 함께했다.

아시안미션 9개지역 추석수련회

현지인 리더 중심 운영·다음세대 제자훈련 강화

2025 추석 네팔 연합수련회 단체사진

아시안미션(Asian Mission·대표 이상준)은 2025년 추석 연휴를 맞아 9개국 이주민 연합 단체들과 협력해 추석 수련회 및 가을 운동회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상준대표는 "9개 지역에서 진행한 이주민 추석 수련회를 은혜가운데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매년 하는 추석 수련회이지만, 올해 이주민 수련회가 더 뜻 깊었던 이유는 첫째로 이전에는 한국인 사역자들이 진행을 주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대부분을 각 국가의 현지인 리더 중심으로 운영하였고, 둘째로 각 나라별 수련회에서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늘어 다음세대 돌봄과 제자훈련이 강화됨을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수련회였다"고 말했다.

수련회와 가을운동회에 참여한 단체는 △KTM태국인추석수련회/10/5-10/팀비전센터/김봉운선교사 △차이스타중국유학생수련회/10/3-10/경기광주 소망수양관/박영송목사 △안산이주민가을운동회/10월4일/신안산대학교대운동장/심재근목사 △재한몽골인추석수련회/10/7-10/치악산명성수양관/이해동목사 △주한베트남추석수련회/10/6-10/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안정호목사 △재한캄보디아추석수련회/10/6-10/천안재능교육연수원/최규정선교사 △스리랑카추석수련회/10/3-10/6/홍천 리버샤인빌리지/고현미선교사 △HDF 향상이주민/10/6-10/제주올레기도원/이평안선교사 △네팔연합수련회/10/4-10/경기화성예성영성원/유병설목사 등이다.

"사도행전의 길을 걷다"

2026 터키·그리스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

뉴욕기독교방송이 2026년 3월 23일(월)부터 4월 1일(수)까지 10일 일정의 터키·그리스 성지순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순례의 주제는 "시대는 변해도 신앙은 그 자리에 사도행전 선교 신앙의 현장을 걷다"로, 사도 바울 2차 전도여행의 핵심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방문지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박물관, 메테오라 수도원, 빌립보의 네압볼리 항과 빌립보 감옥, 루디아 기념교회,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과 사도 요한 관련 유적, 소아시아 7교회(버가모·두아디라·빌라델비아·서머나·사데 등), 아테네 파르테논과 아크로폴리스, 소크라테스 감옥, 근대 올림픽 경기장, 트로이 목마, 이스탄불 등이다. 밧모섬 방문은 현지 사정에 따라 출발 한 달 전 최종 확정된다.

경비는 2,300달러에 항공권은 별도이며, 호텔·식사·차량·현지 입장권·기사·가이드가 포함된다. 기사·가이드 팁 1인 100달러는 불포함이다. 참가자에게는 순례 사진과 영상이 담긴 USB가 제공된다. 접수는 2025년 11월 3일(월)부터 시작하며, 문의는 718-414-4848 또는 718-354-5545로 하면 된다.

이번 코스는 2024년 10월 실제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을 얻었다. 당시 최고 연장자 김희견 장로는 "초대교회 성터에 서니 화려함은 사라졌어도 마음에는 원형극장의 합창과 거리의 소리가 살아났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성순 권사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바울을 생각하며, 오늘 자유롭게 믿음생활하는 우리의 행복을 깊이 깨달았다"고 전했다. 강학기 장로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사랑으로 나눴던 교제가 오래 기억될 것"이라 했고, 이정애 권사는 "성경의 지명과 인물들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와 신앙의 진보를 체험했다"고 말했다.

인솔을 맡았던 문석진 목사는 "모든 순례자가 안전하게 일정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서 즉석 혼성 찬양대를 조직해 드린 찬양은 큰 감동이었다. 말씀의 현장을 직접 밟으며 성경의 지명과 내용을 일치시켜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성지순례는 사진 관광을 넘어 말씀을 체험하는 여정을 지향하며, 신앙의 뿌리를 다시 세우는 배움과 위로, 공동체의 교제를 목표로 한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기독뉴스, 라파예트에비뉴장로교회에...

〈1면에서 계속〉

문석진목사는 "한국 선교 140주년이다. 이 때 어려운 시기에 복음의 빚을 함께 갚는 일에 비록 적은 액수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감사한 마음과 함께 후원금을 전달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언더우드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어머니 교회'인 라파예트에비뉴장로교회는 지역사회에 개방된 환대와 안전의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 보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같은 모금성금 전달에 대해 라파예트에비뉴장로교회는 기독뉴스 발행인 문석진목사에게 답례의 글을 보내 왔다. 전문을 번역 소개한다.

문석진 목사님께,

LAPC의 '오프닝 도어스(Opening Doors) 건축 캠페인'을 대표하여, 2025년 10월23일에 전해 주신 미화 3,000달러의 귀한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브루클린의 Buckhorn Association이 LAPC에 1:1 매칭 그랜트를 승인하여, 이번 후원의 영향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보내 주신 3,000달러는 캠페인을 지원하는 6,000달러로 전환됩니다.

절실히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금은 본당(Sanctuary) 보수, 본당 내 여러 환경 개선, ADA(장애인접근성) 기준 충족을 위한 공사, 그리고 115년이 넘은 파이프오르간의 주요 수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예배당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환대와 안전의 공간, 지역사회를 위한 피난처이자 자원으로 계속 자리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기부에 대한 세금 공제 확인서(영수 확인)는 2026년 초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함께,

(서명) Deb Howard (서명) Debbie Kellogg

뉴저지교협, 제39회 정기총회 개최

신임 회장에 권형덕 목사 선출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는 9월 29일(월) 오후 5시 참아름다운 교회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권형덕 목사(뉴저지연합감리교회)**를, 부회장에 최재형 목사, 평신도 부회장에 김창연 장로를 선출했다.

권형덕 목사는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회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1부 예배는 권형덕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의 특별찬양과 김동권 목사(직전회장)의 설교가 이어졌다. 김 목사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민수기 27:18-2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새 임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믿음으로 사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부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 및 회계 보고가 진행됐으며, 감사패 전달 후 신임 임원 선출과 인사가 이어졌다. 오범준 목사는 지난 회기 주요 사업으로 시무예배, 호산나전도대회, 부활절연합예배, 부흥전략세미나 등을 보고했다.

이임한 박상돈 목사는 "38회기 표어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막16:16) 아래 함께 사역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소임을 마쳤다.

총회는 권형덕 신임 회장의 폐회기도와 만찬 교제로 마무리됐다.

제3회 한인교회 발달장애컨퍼런스

제3회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가 10월 17~18일 로스앤젤레스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에서 열렸다.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과 충현선교교회가 공동 주최하고, Charis Church·그레이스미션대학교·남가주밀알선교단 등이 협력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A Church without Disabled people is a Disabled Church(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를 주제로,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론적 전환을 제시했다.

기조강연에서 김바나바 목사(퀸즈한인교회)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경험을 나누며 "장애인이 함께 서 있을 때 교회가 온전하다"고 말했다. Dr. Chris Hulshof 교수(리버티대)는 성경적 근거를 들어 포용적 리더십의 핵심 요소인 이해·신뢰·접근성·희생을 강조했다. 김홍덕 목사(조이장애선교센터)는 "장애사역은 복지 영역이 아니라 복음의 영역"이라며, 예수의 나병환자 치유 사건을 통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웠다.

18명의 전문가들이 예배·목회·교육·부모돌봄 등 전 생애주기적 사역 모델을 발표했으며, 부모세션과 차일드케어 프로그램, LA 정신건강국·리저널센터의 현장 부스 운영 등 실질적 지원이 병행됐다.

패널토의에서는 장애 성도가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동일 공동체 안에서 신앙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교회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TBRI(신뢰 기반 관계 개입)와 ASD 친화적 환경 사례가 소개되며, 자발적 선의보다 체계적 훈련과 제도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영선 사장(미주복음방송)은 "ASD 유병률이 20년 새 5배 증가했다"며 "교회가 반드시 응답해야 할 시대적 명령"이라고 말했고, 국윤권 목사는 "장애인이 예배의 중심에 설 때 복음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전했다.

러브뉴저지 정기총회

러브뉴저지(운영위원장 박지우 목사)는 9월 23일(화) 오전 10시 필그림선교교회(양춘길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운영위원장에 한순규 목사(뉴저지 땅끝교회)를 선출했다.

예배는 박종윤 목사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해 박지우 목사의 설교, 양춘길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박 목사는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개인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 지역사회 섬김, 차세대 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각 분과별 사업 및 회계 보고가 있었으며, 한순규 목사를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최다니엘 목사를 교육분과위원장, 신철웅 목사를 청년분과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신대위 목사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양춘길 목사(고문)는 "다양한 목회자들이 하나 되어 협력할 때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며 연합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BSN 종합뉴스] 10월 25일(토)

cbsn 뉴욕기독교방송

▶ 연방정부 셧다운, 역대 2위 최장… 예산안 상원서 또 부결
▶ 푸드스탬프 수혜자, 플러싱에 10만명 육박
▶"카네기홀 공연은 K클래식 글로벌화의 상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토) CBSN 주간뉴스 이 프로그램은 뉴욕한국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역대 2위 최장… 예산안 상원서 또 부결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23일째를 맞으며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을 세웠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를 두고 공화·민주 양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이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22일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부결됐다. 셧다운 국면에서 예산안 부결은 이번이 열두 번째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화당은 통과에 필요한 60표 확보에 실패했다.

민주당 제프 머클리(오리건) 상원의원은 22시간 연속 연단에 서서 "공화당이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을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엑스(X)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급진 좌파에 굴복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셧다운을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며 역대 최장인 2018~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35일)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에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대립으로 사태가 장기화됐다.

한편 급여가 중단된 연방정부 직원 140만 명이 워싱턴 DC 등지의 푸드뱅크에서 무료 식료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CNN은 "다음 주 월세를 내야 한다"며 식료품 상자를 받은 계약직 직원의 사례를 전하며, "셧다운 장기화로 생계난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 푸드스탬프 수혜자, 플러싱에 10만명 육박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푸드스탬프(SNAP) 근로요건 강화로 자격을 잃는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뉴욕주가 지역별 수혜 현황을 발표했다.

뉴욕주 내 SNAP 수혜자는 약 300만명으로, 이 중 브롱스의 15선거구가 27만2,8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맨해튼 13선거구가 22만여명, 브루클린 8선거구가 20만1,200명으로 뒤를 이었다. 퀸즈의 9선거구와 14선거구는 각각 15만9,636명, 14만6,306명으로 집계됐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6선거구(그레이스 멩 의원)는 9만3,886명으로 13위를 차지했으며, 낫소카운티와 북동부 퀸즈 일부를 포함하는 3선거구(톰 수오지 의원)는 2만8,015명으로 가장 적었다.

연방농무부(USDA)는 지난 3일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ABAWD)에 대한 근로요건 면제를 11월 2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면제 대상이었던 참전용사, 노숙자, 55세 이상, 위탁보호 종료 청년 등도 SNAP을 유지하려면 근로·자원봉사·직업교육 참여 등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면제 대상은 14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와 65세 이상으로 축소된다. 이로 인해 신체 건강한 성인은 다음달부터 근로요건을 충족해야 SNAP 수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카네기홀 공연은 K클래식 글로벌화의 상징"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가 거장 얍 판 츠베덴 음악감독과 함께 오는 27일 뉴욕 카네기홀, 이어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오클라호마주 스틸워터 맥나이트센터에서 미주순회 공연을 진행한다.

정 대표는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무대에서 K클래식의 현재를 보여주고자 했다"며 "

작곡가 정재일·신동훈, 협연자 김봄소리·박재홍이 서울시향과 함께 한국 음악의 우수성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향은 올해 창단 80주년을 맞았다. 정 대표는 "해방 직후 1945년 창단한 서울시향은 2005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며 "현재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로 평가받고 있으며, 10년 내 베를린필에 도전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뉴욕필 전 음악감독 얍 판 츠베덴이 서울시향의 음악감독으로 합류하면서 "서울시가 던진 글로벌 승부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츠베덴 감독은 단원을 설득하는 리더십이 탁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향은 27일 카네기홀 'International Festival of Orchestras II' 무대에 올라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협연 김봄소리), 위촉 신작 정재일의 '인페르노(Inferno)'를 연주한다. 이어 오클라호마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박재홍이 협연자로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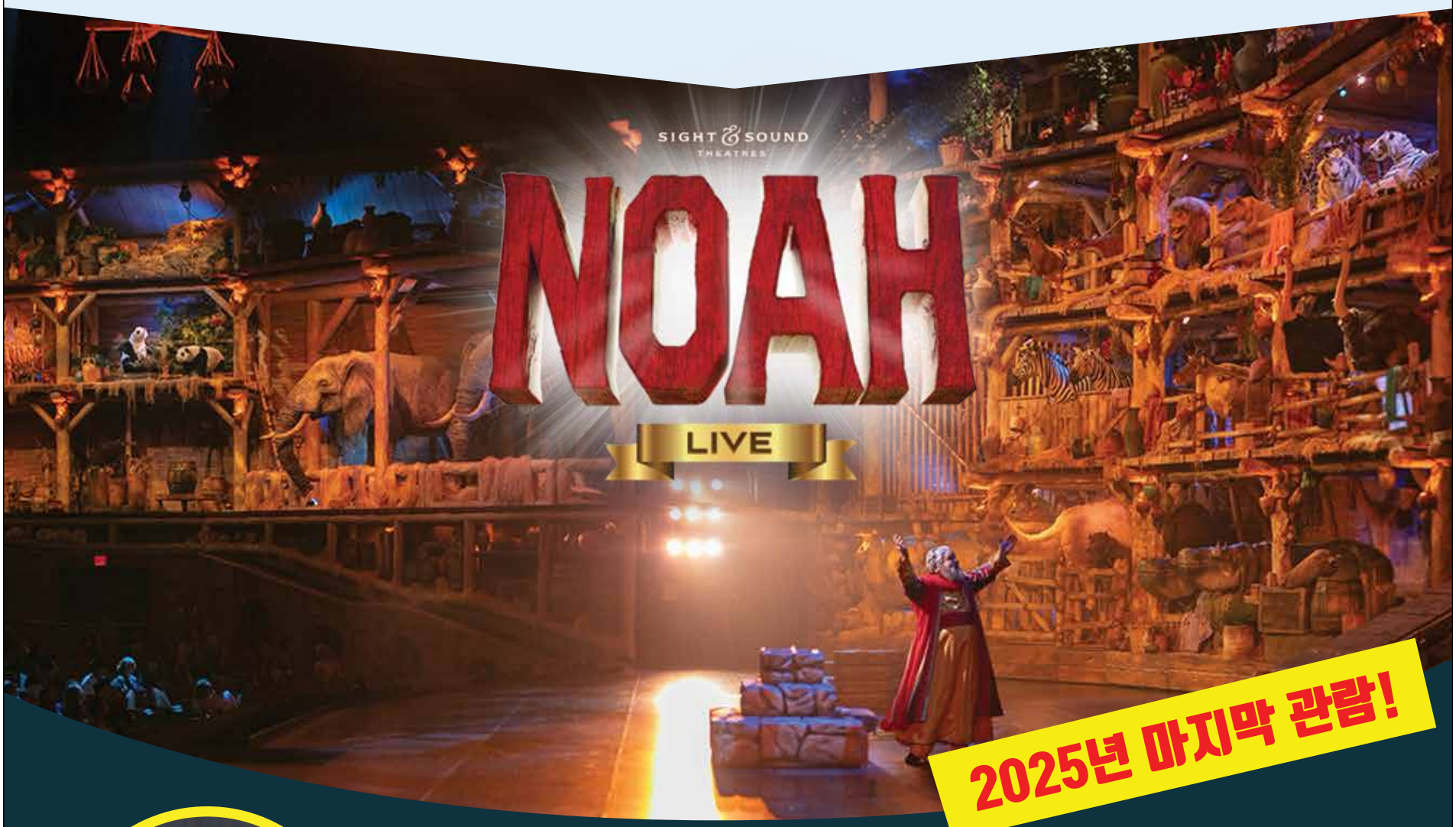
정 대표는 "서울시향의 카네기홀 무대가 K클래식의 세계화를 상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내에서 최고의 명성을 다진 뒤 세계 무대로 확장하는 것이 진정한 글로벌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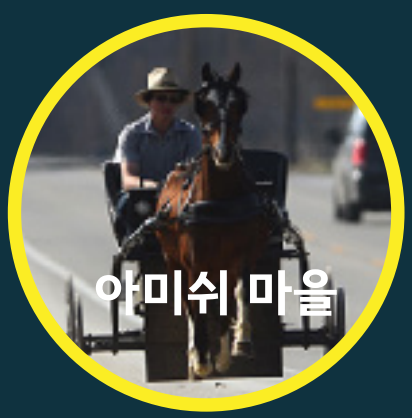
▲뉴욕 공연 장소: Stern Auditorium, Carnegie Hall (881 7th Ave, New York, NY 10019)

▲티켓 문의: 212-247-7800 / www.carnegiehall.org

매일 오전, 기독뉴스가 발행하는 'CBSN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려면 이메일 KidoknewsNY@gmail.com 또는 전화 718-414-4848로 신청해 주세요

성경뮤지컬 노아





Sight & Sound 극장 30주년 기념
가장 특별한 성경 이야기 노아
전 지구적인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미국의 청학동 재세레파 전통의 아미쉬 마을 투어

성경뮤지컬 /아미쉬 마을 체험 & 쇼핑	11월12일 관람2석 선착순 모집
$250 (차량, 식사, 입장권, 기사 가이드팁 포함)	

- 재미와 감동, 힐링 여행
- 문석진목사의 노아와 아미쉬 특강
- 한국어 자막기 제공(한정)

* 소그룹 문의 환영

문의/신청: 뉴욕기독교방송 여행사업팀
718.414.4848 / 718.354.5545

주관: cbsn 뉴욕기독교방송 여행사업팀 후원: 기독뉴스

교회탐방

“세상에 희망을 주며 희망이 시작이 되는 교회” (뉴욕우리교회)

담임 조원태목사

■ 교회 비전

뉴욕우리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젊은 교회이다. 올해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은 교회이면서 이민 1세대와 젊은 세대들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과 더불어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미국장로교 (PCUSA)감독 아래 1916년 퀸즈 매스페스 지역에 창립된 미국교회와 합병,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1925년 5살이던 백인 소녀가 교회의 장로가 되어 작년에 별세하기 전까지도 출석하여 교회 역사의 산 증인이 되어 주었다.

■ 교회 연혁

뉴욕우리교회는 2011년 9월18일 포레스트 믿음장로교회에서 새롭게 이름을 바꾼 것인데 양희철 목사가 1975년 이 교회를 포레스트 힐 지역에서 개척했었다. 2010년 9월2일 은퇴한 양희철목사가 뉴욕우리교회 원로목사가 되고 조원태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교회 이름

교회 이름인 ‘우리’는 첫째 예수사랑으로 한 가족이 된 ‘우리’, 둘째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의 ‘우리’, ‘울타리’, ‘펜스(fence)’는 연약한 자를 위한 피난처의 역할이라는 의미다.

■ 지역을 지키는 교회

현재 롱아일랜드시티, 엘머스트, 서니사이드 등에 있던 한인교회들이 한인밀집지역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지역으로 많이 떠났지만 뉴욕우리교회는 이곳을 지키면서 맨하탄, LIC, 아스토리아 지역 젊은이들을 받아들여 더욱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 희년을 맞은 교회

올해 희년을 맞아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희망이 시작된다” 비전처럼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세상 모든 곳에 희망을 주며 이 꿈을 향해 모든 이들과 어깨동무하는 우리가 되고자 한다.

■ 투게더 소그룹 모임

뉴욕우리교회에는 매주 주일예배를 마치고 30여개의 투게더 소그룹 모임을 갖는다. 투게더란 이름은 마태복음 18장 20절(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에서 시작된다. 소그룹 모임 안에 예수님의 자리를 비워놓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이다.

■ 가배

이 소그룹을 섬기는 가배(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은 매주 토요일에 미리 말씀을 나누고 준비한다. 또한 한달에 한번 비슷한 연령대가 선교와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8개의 사랑방 모임을 매달 둘째 주일에 갖는데 웃음과 축복이 가득한 가족 같은 모임이 되고 있다.

■ 노아 방주 사역

이 중 매주 화요일 오전에 모여 기도하는 노아방주 사역은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성숙과 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장년은 새로나기 배움터, 확신반, 성경일독반, 큐티반, 땅하발, 어기모, 화요중보 기도반이 있으며 다음세대는 EM확신반, KM확신반, 중고등부 제자반, 한국학교가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다.

■ 교회 교육

교육부서는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유스, EM 청년, KM 청년부 공동체로 각 연령별로 충성된 교역자들이 섬기며 다음세대가 말씀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

■ 역사를 잊지 않는 교회

다음세대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삼일절 기념예배와 광복절 기념예배를 매년 드리고 있다. 다음세대와 함께 기미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독립운동가들의 묘소를 찾아 함께 추모하며 우리 역사 및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다.

■ 국내외 선교

국내외 선교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2001년부터 아이티의 가장 낙후되고 위험한 시티솔레이 지역에 고아와 청소년 선교에 포커스를 두고 후원하였으며 아이티 선교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매년 단기선교를 하며 아이티 고아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다. 또한 교회가 제1선교지로 섬기며 동역하고 있는 강원도 철원의 국경선 평화학교는 매년 여름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이 철원의 DMZ를 순례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 이민자보호교회

뉴욕우리교회는 신분과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이민자로 살아가는 동포들을 위해 “교회가 피난처가 되겠습니다”라는 구호로 이민자 보호 교회 사역을 통해 돕고 있다. 조원태

목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민자보호 교회는 2017년 3월 결성되어 피난처교회, 복지교회, 후원교회사역을 통해 현재 100여교회가 활발히 참여하고 이민 동포사회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 담임목사 소개

조원태목사는 한신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2000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2001년 영국 버밍험대학교에서 구약학으로 박사과정을 공부했으며 2010년부터 뉴욕우리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 예배안내 및 주소

이른비 예배:주일오전 8시, 영어주일예배:오전9시20분, 큰비 예배 오전11시. 어린이부/중고등부 주일예배:오전11시, 영어청년예배:오후1시30분. 새벽기도회(화-토) 새벽6시, 금요찬양예배:오후7시 30분. 방송설교: 단비TV(토) 저녁10시, (주일)오전6시, K-Radio(토) 오후12시 30분. 한국C채널(금) 오전1시.

매스페스예배당주소:53-71 72nd Place, Maspeth, NY, 11378. 전화: 718-565-6555/ www.nywoorichurch.org

기독뉴스, 뉴욕기독교방송 후원자 명단 9-10월 2025

기독뉴스와 뉴욕기독교방송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은 방송과 문서선교 활동에 소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어린양교회
뉴욕평화교회
뉴욕예일장로교회
푸른초장교회
뉴욕신광교회
뉴욕수정교회
에버그린장로교회
후러싱제일교회
하은교회
한인동산장로교회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뉴욕십자가교회
뉴욕빌립보교회
뉴욕주는교회
뉴욕성서교회
뉴욕만나교회
뉴욕한인연합교회
뉴욕방주교회
퀸즈장로교회
찬양교회
뉴저지성도교회
제자삼는교회
뉴욕그레잇넥교회
팔복선교회
LA평화교회
은혜충만교회
주향교회
평강교회
아베선교회
기쁨교회
열매교회
아베선교회
만남의교회
미주예멘미션교회
아메리카노회
가나교회
제일장의사
코리니
음양한의원
마라내츄럴아메리카
차콜온돌
조종민
차에스더
박수현
신광연
양경훈
김성려
두영희
박미경
권영일
이은영
김유선
문순자
홍종임
김종암
홍종순
호일봉
전미령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11월3일부터 예약 시작합니다

중요 선교신앙 성지

-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유럽 최초로 발을 디딘 빌립보 네압볼리
-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전도한 빌립보 감옥터
- 빌립보 루디아 기념교회
- 공중에 떠 있는 수도원이란 뜻으로 유명한 메테오라 수도원
-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세운 고린도교회
- 문서 전도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두란노서원
- 사도요한이 복음서를 기술하고 생을 마감한 에베소
- 소아시아 7교회 중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빌라델비아교회, 사데교회
- 세계 문화유산 1호 파르테논과 아크로 폴리스 등 아테네 유적지 체험
- 그리스 문학의 가장 오래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로 유명한 트로이목마
-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터키 이스탄불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월23일-4월1일 2026 $2300 + 항공

cbsn 뉴욕기독교방송

- 호텔, 식사, 차량, 현지 입장권, 기사, 가이드 비용 포함
- 가이드, 기사 팁(1인당 $100)은 별도

문의/신청 : 718.354.5545 / 718.414.4848

* 문석진 목사가 동행합니다.

거리의교회 창립 35주년 감사예배 드려

전예인 목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니다"

거리의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예배 모습

LA 타운 노숙자 선교의 한인 교회 개척자인 거리의교회(설립자 및 대표 전예인 목사)가 창립 35주년을 맞아 감사예배 및 LA Mission Choir(단장 전써니, 지휘자 김숙영) 제1회 정기공연을 지난 9월 20일(토) 오후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개최했다.

감사 예배 설교를 맡은 박일영 목사(나성연합장로교회 담임)는 "어린 아이들의 나라"(눅18:15-16) 제목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아이스러움의 신앙의 삶에서 볼 수 있다. 로스엔젤레스가 천사들의 도시가 되려면, 우리가 거리의교회처럼 노숙자를 섬기는 아이스러움의 신앙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에는 거리의교회 설립자인 전예인 목사가 휠체어를 타고 동석, 참석자들이 감사와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다. 전 목사는 미리 배포된 감사 인사말을 통해서 " 마태복음 25:34-40 성경말씀에 순종하며 노숙자 선교사역을 했다. 1990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는 LA 타운 노숙자 사역은 하나님 은혜로 감당한 사명였다. 2009년 쓰러진 후 노숙자 선교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아네 전써니 사모와 봉사자들, 지난 35년간 섬겨준 가족과, 많은 교회와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사역이 계속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감사예배는 사회 김숙영 앵커, 찬양인도 조준석 목사, 동영상 거리교회 35년 사역, 기도 김종용 목사, 성경봉독 윤태선 목사, 설교 박일영 목사, 축사 이봉하 목사(아름다운교회 담임)/ 최승구 목사(한국장로회 신학대 미주은퇴목사회 총무)/이정현 목사(크리스천비전 대표)/ 박형만 장로(만희복지재단 대표), 봉사상시상 제25지구 주상원의원, 축도 엄규장 목사(LAMC 고문 이사) 각각 순서를 맡았다.

예장대신 미주노회 장한민 노회장 선출

장한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미주노회 제83회 정기노회가 지난 10월 14일 (화), LA 소재 하늘영광교회(담임 김성광 목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신임 노회장에 장한민 목사(좁은문교회 담임)을 선출했다.

2025 다민족연합기도회

2025년 다민족연합기도회가 11월 2일 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Repent, Revive, Restore" 주제로 개최된다. 다민족이 함께 모여 "수년 내에 이 땅위에 대부흥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

주향교회 창립 제49주년 기념 주일 예배

김 신 목사 "하나님 사랑으로 주님의 향기 되자"

주향교회 엘리엘 찬양대가 찬양하고 있다

KPCA 주향교회(담임 김 신 목사)가 창립 49주년을 맞아서, 창립기념주일 예배와 함께 반석남선교화와 주향여선교회 공동주최로 창립기념주일 산문대회를 개최했다.

기념주일예배에서 김 신 목사는 역대상 16:35 성경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라"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목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 공동체,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전도 사명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라"고 강조했다,

창립기념주일로 지난 9월 21일 드려진 예배는 경배와 찬양찬양팀, 사회 김신 목사, 예배기도 신매희 집사, 찬양엘리엘 찬양대, 설교 김신 목사, 특송 김진실 집사/남성 중창단, 산문대회 시상식, 축도 김신 목사가 순서를 맡았다. 특별히, 이날 예배 특순에서는 기념주일산문 대회 입상자 1등 정광석 집사, 2등 박영숙 권사, 3등 신매희 집사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동 교회는 2025년 교회 비전 "오직믿음"속에 5대 사역목표 "Build Up, Faith Up, Love Up, Hope Up, Dream Up" 기치를 높이 들고, 2026년 교회 창립 50주년을 향해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부흥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남가주신학대 연합 제10회 설교 페스티발

개회설교 진유철 목사 "설교자는 하나님 도구"

제10회 남가주신학대 설교 페스티발 개회예배 설교하는 진유철 목사

2025년 남가주한인신학대학교 제10회 연합 "설교 페스티발" 행사가 지난 10월 18일 토,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은혜롭게 마쳤다. 이번 행사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 대표 송정명 목사, 한기홍 목사) 주최로 개최됐다. 설교페스티발 영예의 대상은 C국에서 영상설교로 참가한 전문인사역자 죠수아 신 학우(헨리아펜젤러대, M Div 재학, 설교코칭 오정택 교수)가 받았다.

개회 예배에서 진유철 목사는 "설교의 능력" 제목 설교에서 "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설교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송정명 목사는 "이 행사는 경쟁이 아닌 차세대를 이끌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설교의 훈련과 배움의 축제의 자리이다" 고 환영사를 전했다.

▲설교 페스티발 참가 신학대학교/ 참가자 이름△ 국제개혁대/ 김혜성 학우 △ 그레이스미션대 / 브라이언 리 학우 △ 미성대/ 한병권 학우 △ 에반겔리아대/ 허 창 학우 △ 월드미션대/ 김진국 학우 △ 캘리포니아프레스티지대/ 임우리 학우 △ 헨리아펜젤러대/ 죠수아 신 학우(이상 가나다 순)

좋은나무교회 신윤석 목사 제2대 담임 취임

"하나님의 시간속에 하나님의 뜻 함께 이루자"

좋은나무교회 제2대 담임 신윤석 목사가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라미라다 소재 좋은나무교회는 지난 10월 5일 주일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신윤석 담임목사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 예배에 말씀을 전한 노진걸 목사(KPCA 해외한인장로회 증경총회장)는 요한복음 10장:10-17절 본문을 중심으로 " 선한 목자와 양" 제목으로 설교했다. 노 목사는 "가정과 교회에서 특별히, 화평과 사랑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목자와 선한 양이 되라"고 강조했다.

신윤석 담임목사는 취임 인사말에서 "교회의 목사와 성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만남과 시간속에 하나님의 뜻을 사랑안에서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은 인도 심삼열 전도사, 대표기도 김원모 장로, 말씀 노진걸 목사가 각각 맡았다. 노진걸 목사가 말씀을 전한 후 취임예식을 집례했으며, 예식사와 담임목사와 성도의 서약 후 집례자가 기도 후 신윤석 위임목사됨을 선포했다. 축사는 이상명 총장, 권면 홍명의 목사가 맡았으며, 주성기 장로의 기금전달식과 담임목사 취임인사, 이종휘 집사 광고, 이득표 장로 식사기도, 김대평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 신윤석 담임 목사 소개

△ 한국 장신대 목회학 석사 △ 플러신학교 석사 △ 멕코믹신학교 목회학 박사 △ 나성 영락교회 부목사 △ 에나하임 장로교회 담임목사

언더우드 • 아펜젤러 선교 140주년 기념

연합찬양제

언더우드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2025. 11.2(주일) 오후 5시

뉴저지 참빛교회

18 Essex Rd., Paramus, NJ 07652

- 뉴저지장로성가단
- 뉴저지선교합창단
- 뉴저지사모회
- 여성목회자합창단
- 뉴저지찬양합창단
-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명예대회장: 이용걸 목사, 김영식 목사
준비위원장: 유병우 목사
문의: 김동권 목사 201-394-7821

후원: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뉴저지목사회

특/별/기/고

커피와 종교개혁

장재웅 목사
워싱턴 하늘비전교회, MD

뉴욕의 유명 식당 요리사에게 딸이 있었다. 그 딸은 평소 불평이 많았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까?" 항상 이렇게 투덜대는 딸을 요리사는 어느날 부엌으로 데려갔다.

오븐 위에 세 개의 남비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남비에 당근, 두 번째 남비에 계란, 세 번째 남비에 커피 콩을 펄펄 끓는 물에 넣었다. 20분 후에 요리사는 각 남비에서 당근, 계란, 커피를 꺼내 세 개의 그릇에 담았다.

그리고는 딸에게 물었다. "그릇들 안에 무엇이 있니?" "당근, 계란, 커피…" 아버지는 딸에게 말한다. "당근을 만져 보고, 계란 껍질을 벗기고, 커피를 마셔보거라." 딸은 당근이 아주 연하게 익어 있고, 삶은 계란은 단단하고, 커피 맛은 아주 향기롭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아버지, 왜 이런 걸 제게 물으세요?" "딸아,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똑같이 펄펄 끓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은 각기 다르게 반응하고 다른 결과들을 나타냈다. 당근은 원래 단단했지만, 뜨거운 물 속에서 연하고 약해졌다. 계란은 본래 아주 깨어지기 쉬웠지만, 뜨거운 물 속에서 단단해졌다. 커피 콩은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아예 물 자체를 변화시켜 향기로운 커피를 만들었다."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응시하며 물었다. "이 세 가지 중에 너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니? 어려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 단단했다가 약해진 당근에 속하니? 아니면 깨어지기 쉬웠지만 단단해진 삶은 계란에 속하니? 아니면 뜨거운 물을 아예 커피 물로 바꾼 커피 콩에 속하니?"

딸은 아버지가 부엌에서 교훈해 주신 심오한 교육에 크게 깨달음을 얻고, 그 후부터는 어떤 어렵고 뜨거운 환경이 오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계란이나 커피처럼 살겠다고 결심하였다고 한다.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다. "Tough times never last, tough people do." 터프한 시간은 결코 오래 가지 않으나, 터프한 사람은 오래 간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이 신앙을 갖지만 터프한 시간이 올 때, 모든 사람이 그 터프한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고 오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터프 타임에 쉽게 굴복하고 어떤 사람은 터프 타임 속에서도 오래 인내하고 승리한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킨다. 올해 2025년은 508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개혁일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독일 북부 비텐베르그에서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된 중세 교회를 향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일으킨 날이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은 'Three Solas'라는 말로 잘 표현된다. 'Sola Fide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Sola Gratia (Grace Alone, 오직 은혜로)' 'Sola Scriptura (Scripture Alone, 오직 성경으로)', 이 세가지가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은 종교개혁자 칼빈(John Calvin, 1509-1564)의 일생을 지배했던 중요한 삶의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코람데오(Coram Deo)'이었다. 이 말은 하나님앞에서(In front of God)라는 뜻이다.

때로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해와 핍박도 받고 억울하고 분할만한 소문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권모술수하는 자들이 잘되는 것 같아도 그렇치 않다. 진실은 다리가 길다. 진실은 오래간다. 진실은 오해와 불신을 이긴다. 진실이 가리워지고 불신이 팽배해진다고 해서 삶이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종국적으로 계란과 같이, 커피와 같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불굴의 신앙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오랜 세월동안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김/도/형/칼/럼

중독치유 (18)

김도형 목사
기독교국제중독전문연구원장

인간이 그 무엇에 중독되었다 할 때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생물학적인 신체의 신경을 각성시키거나 억제하는 화학 물질에 지속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독매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고 그것을 긍정으로 인식하는 인간 의식의 진행으로 확장되고 심화하여 간다. 인간의 이 의식을 연역법적으로 구체화 시켜 따라가면 인간의 필수 요소인 이성으로 귀착되고 절대적으로 그 이성의 지배를 받는 물리적 요소인 육체와 비물질적 요소인 정신(마음, 생각)이 파생시키는 것이 전인격 현상이다.

전인격은 지, 정, 의로 압축할 수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정확히 알고 있는가? 어떤 것에 대해 무슨 감정이 있는가? 알고, 느끼는 것에 대해 목표를 분명히 하고 행동하고 있는가로 평가된다. 이것이 잘못되면 물질중독, 행위중독, 사상중독과 같은 비인격적 악폐를 발생하게 된다..

결국, 모든 중독은 이 비인격적 악폐로 규정할 수 있는데 좀 더 세분화, 자세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물질중독은 화학 물질이 인간의 쾌락중추를 자극하여 그 물질에 반응하게 하여 메커니즘을 형성, 지속필요성을 강화해 맹목적 집착을 발생하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행위중독은 인간의 어떤 행동에 강렬한 자극을 받고 더 큰 만족을 위해 자신과 타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킴에도 제어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사상중독 역시 올바른 기준이 없는 자아 정체성 결여의 인간이 자신 밖에 있는 타자의 지식, 경험, 논리 등에 강한 영향을 받아 노예가 되고 그것이 어느새 자기중심 정체성이 되어 막무가내로 자기주장을 주변에 적용하여 되돌려 자기만족을 얻으려는 낮은 수준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앞에 언급한 이 세 가지 중독의 공통적 핵심 요인들이 인류사회의 적폐 상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것들의 공통적 분모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자기만족 추구 현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언제나 자기만족 추구 현상은 육의 쾌락(快樂) 정욕, 목(目)의 정욕, 자기과시(자랑) 교만이 핵심적 요인들로 이것에 빠진 존재는 꼭 폐망한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인 성경은 자기만족 추구를 사단의 일들로 여겨 신자들이 철저히 배격해야 할 것으로 말씀에 명시하고 있다.

(요일 2: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요일 2:17)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국, 중독은 어떤 중독이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은 사단의 일이다. 중독 행위에는 하나님 사랑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세상 것들로 죄악의 행위요, 패망의 근거가 될 뿐이다.

이런 진리의 지식을 성경에서 배운 신자들은 그래서 중독매개는 가까이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할 물질이요 행동이요 사상으로 확실학게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해 무지와 오기, 착각으로 중독에 빠진 형제자매들과 그 가족들을 구출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더 나가 미래세대의 주역들인 자녀들에게 철저한 중독예방 교육을 하여 중독으로 현대사회를 망하게 하려는 사단의 궤계를 저 멀리 물리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정/호/칼/럼

단축 야고보 순례의 길

김정호 목사
후러싱제일교회 담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산티아고 길 순례' 마지막 100km를 5일간 마쳤습니다. 전체 800km 걷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마지막 부분만 걸었습니다. 야고보 순교가 아니라 순례의 길입니다. 수년 전부터 가까운 사람들이 800km를 완주하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하다 여기고 부러워만 하던 중 모두 "고민하면 못해요 그냥 가요" 하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걷는 길이라는데 저는 별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걸으니 다치거나 기와 근력이 모자라 중도 탈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고 먹고 마시는 것 의견차이로 아내와 신경전 벌이는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벗어나 하루 종일 5일 동안 걸어보기는 처음이라 힘들어도 좋았고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걷는 것이 새삼 행복했습니다.

순례길 떠나기 전날 덴버에서 왔다는 80세가 족히 넘었을 남자 두 분이 "출발점이 어디죠?" 묻기에 제가 "앞서가는 순례자들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출발점은 언제나 당신이 길 떠나는 그 자리예요"하고 내 말에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순례길에 노년들이 많은 것이 놀라웠습니다. 오르막길 힘겹고 내리막길 더 힘들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걸으니 사람 뒷모습만 보여 사람 외모로 판단하는 일 없는 것이 좋았습니다. 걷는 길 지나칠 때 '엘 까미노'라 인사하는데 "같은 길 가는 길동무여 좋은 여행!"하는 것 같아 가슴 뭉클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모두 한길 가는 길동무입니다.

발소리만 들려야 하는데 난 힘겨워 숨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길가에 온통 밤나무라 열심히 많이 주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농가를 지나는 길 낭만적이고 평화로운데 소똥 퇴비 냄새가 따라와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루는 계산 착오로 31Km를 걸으며 아내 배낭까지 짊어져야 할 상황이 생겨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진땀을 흘렸는지 몸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땀 흘림과 좋은 공기 호흡으로 다 빠져나오는 것 같고 뱃살이 줄어든 것 같아 좋았습니다.

800Km 완주한 친구가 "생각을 멈추고 자기를 잃고 걷다 보면 그분이 말씀할꺼야" 충고하는데 나는 생각도 느낌도 참 많았습니다. 겨우 100km 걷고 뭔 깨달음이 매일 그리 많으냐고 또 다른 친구가 한마디 하기에 평생 매일 깨달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온 직업병이고 득도와 해탈은 찰나에도 있는 것 아니냐 했습니다.

해 뜨기 전 어두울 때 앞에 길 가는 사람이 고맙고 나무 타는 냄새 정겹고 땅에 떨어져 발효되는 사과 향기에 취하고 땅에 떨어진 밤을 까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야고보가 앞서 오래전 주님과 동행한 길 비록 단축된 순례의 길 걸었지만, 예수 동행 감사와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주/애/칼/럼

영혼육 상담 — 요한계시록을 통해 본 인간의 질서

이주애 목사
허름한미술관 & 영혼육상담실

이 글은 아들의 방황으로 뉴욕에 와서(2009) 정착이 마무리될 무렵(2013), 맨해튼 작은 골방에서 쓰여진 소논문을 서광(2018,제26호통권제35호,서울대기독교총동문회)에 발표한 것을 간결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뒤섞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영혼은 메말라가고, 감정의 홍수 속에서 이성은 흐려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래 구조', 곧 영혼육의 조화를 다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종말의 예언서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가장 깊이 보여주는 책입니다.

1. 요한계시록 속 인간의 세 층

요한은 밧모섬의 고립된 자리에서, 인간의 외적 현실(육)과 내적 의식(혼), 그리고 하늘의 교통(영)이 어떻게 단절되고 회복되는지를 영적 비전으로 기록했습니다. 영(Spirit)은 하나님의 숨결이 닿는 자리입니다. 요한은 그 영의 세계로 '성령에 감동되어' 들어갑니다(계 1:10). 그때 비로소 그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실체, 곧 교회의 진짜 얼굴과 세상의 영적 구조를 봅니다. 혼(Soul)은 인간의 감정과 의식, 선택의 영역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은 각기 다른 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어떤 교회는 사랑을 잃고(에베소), 어떤 교회는 미지근함에 빠지며(라오디게아), 또 어떤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서머나). 혼의 방향에 따라 영이 솟구치기도, 꺼지기도 합니다. 육(Body)은 영과 혼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짐승과 음녀는 '육의 탐욕'이 영과 혼을 삼킨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육도 구속되어, "그 얼굴을 뵈며"(계 22:4) 하늘의 빛을 반사하는 몸으로 회복됩니다.

2. 상담의 시선: 영혼육의 불균형이 만드는 병리 돕기

오늘의 영혼육 상담은 단순한 심리상담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창조 질서의 회복에 있습니다. 영이 닫히면, 혼은 방황하고 육은 중독됩니다. 반대로, 육을 부정하면 현실 감각을 잃고 영적 환상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경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과 육 중 어느 한쪽이 과도하게 지배할 때 인간은 붕괴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담은 '육을 억압하거나 영만 강조하는 일방향의 영성'이 아니라, 영혼육의 흐름이 다시 순환되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 순환이 회복될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사람(Whole Man)'으로 서게 됩니다.

3. 회복의 비전: 새 예루살렘의 질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단순한 천상의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육의 완전한 조화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거리 가운데 흐르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서 있습니다(계 22:1-2). 이것은 영이 중심에서 흐르고, 혼과 육이 그 물줄기를 따라 정화되는 과정의 상징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인간의 회복된 내면 구조이자, 하늘과 땅, 영과 육이 하나로 통합된 완전한 세계입니다.

4. 결론: 밧모의 고립에서 공동체의 회복으로

요한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계시는 일곱 교회에 전해졌고, 그 공동체를 통해 말씀은 살아 움직였습니다. 오늘의 상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의 회복이 아닌, 함께의 회복, 이것이 영혼육 상담의 핵심입니다.

'허름한 미술관'에서 다시 이어진 이 작은 실험, '영혼육 상담실'이라는 간판 없는 자리에서 올려지는 기도가 밧모섬의 고립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숨결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 속에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영혼육의 조화는 단순한 영성의 주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증언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우리 안에서 다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켄터키 노아의 방주 + 아미쉬 마을 체험 여행

(ARK ENCOUNTER & AMISH EXPERIENCE)

"무더운 일상에서 벗어나, 믿음의 여름휴가로 초대합니다."

버스 패키지

2박 3일 / $650 (35명 출발 기준)
ARK ENCOUNTER (노아의 방주)
아미쉬 마을 관광 및 체험
(홈메이드 브레드, 전통 치킨, 애플버터, 파이 시식 포함)

공통 포함
노아의 방주(ARK ENCOUNTER)
아미쉬 마을 문화·음식 체험

항공 패키지

A코스: 1박 2일 / $700 + 항공 (6명 기준)
ARK ENCOUNTER (노아의 방주)
아미쉬 마을 체험 + 농장 마차 타기
오하이오 **성경뮤지컬 〈엘리야〉** 관람

B코스: 2박 3일 / $1,050 + 항공 (6명 기준)
A 코스 일정 포함
창조박물관 + 에즈버리대학 방문
오하이오 작은 스위스 마을
슈거크릭(Sugarcreek) 탐방

출발 일정: 7/9(목)-10(금) | 7/24(금)-25(토) | 8/12(수)-13(목) | 9/3(목)-4(금)

문의/신청 | 718.414.4848
718.354.5545
cbsnNY@gmail.com

주관 cbsn 뉴욕기독교방송 여행사업팀

후원 기독뉴스 | C ZONE

- 전 일정 문석진 목사가 직접 가이드
- 개별 가이드 청취 이어폰 사용
- No Tip/No Option

마라내츄럴 건강정보

"관절염, 통증을 넘어 연골 재생의 길을 열다"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으로, 그 사이의 연골이 충격을 흡수하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준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연골이 닳고 손상되며 염증이 발생한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절염이다.

관절염의 원인은 다양하다. 퇴행성 변화, 과도한 운동이나 외상, 혹은 체내 칼슘 침착으로 인한 석회화 등이 대표적이다. 초기에 연골이 닳을 때는 신경이 없어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연골이 완전히 마모되어 뼈가 맞닿을 때 극심한 통증이 찾아온다. 또한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 손상 부위로 약물이 도달하기 어려워 치료가 더디고 만성화되기 쉽다.

의학적으로는 주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진통제(NSAIDs)나 스테로이드제가 처방된다. 그러나 장기간 복용하면 위출혈, 간부전, 골다공증, 아킬레스건 파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결국 많은 환자들이 일시적인 진통 완화에 의존한 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체내 칼슘을 이온화시켜 연골세포의 재생을 돕는 SAC 칼슘 리카틸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제품은 인체에 흡수된 칼슘을 이온 상태로 유지시켜, 혈류를 통해 연골에 직접 전달되도록 돕는다. 그 결과, 손상된 연골세포의 콜라겐 합성과 줄기세포 활성화를 촉진해 연골 재생을 유도한다.

또한 SAC 칼슘은 석회화로 굳어진 수산화 인회석을 서서히 용해시키며, 면역체계를 안정시켜 자가면역으로 인한 류마티스 관절염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요산 결정체를 제거해 통풍 증상을 완화시키고, 과잉 칼슘의 침착을 막아 관절의 결석을 녹이는 작용도 보고되고 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 60대 여성은 10년 넘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으며 수십 종의 영양제를 복용하고 금(Gold) 성분 주사까지 맞았지만 호전이 없었다. 그러나 SAC 칼슘 리카틸을 복용한 지 일주일 만에 "몸이 20대처럼 가볍다"며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여성은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까지 예약했지만, 리카틸을 섭취한 후 통증이 사라져 수술을 취소했다. 현재는 어깨를 자유롭게 움직이며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다고 말한다.

관절염은 단순한 통증의 문제가 아니다. 세포의 노화와 염증, 그리고 면역체계의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얽힌 만성질환이다. 이제는 통증을 일시적으로 억누르는 치료에서 벗어나, 세포와 연골이 스스로 회복하는 생리적 메커니즘을 활성화해야 할 시점이다.

SAC 칼슘 리카틸은 '몸이 스스로 낫는 힘'을 되살리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통증 완화는 물론 연골 재생과 면역 복원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자연치유 과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건강관리사 문필
문의: 917-291-3800
www.kr.marahnaturalusa.com

김/창/길/칼/럼

남기고 싶은 이야기 (1)

김창길 목사
개신교수도원수도회 창립목사

아버지는 새벽기도회가 끝난 후, 어머니가 공습을 피해 일찍 전차를 타고 마포에 가서 도매로 감자를 사다가 남대문시장에 가서 파는 일을 도우려고 서대문 종점에 가서 감자 자루를 받아 들고 오신다. 이른 아침에 찾아온 젊은 청년은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디 가셨느냐, 언제 오시느냐 묻고 가버렸다. 조금 후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감자 자루를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중에 젊은 청년이 따라 들어와 아버지에게 누런 봉투의 공문 편지를 건넨다. 아버지는 땀을 닦으며 공문을 읽고, 주머니 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보시고는 "엄마가 오시면 아버지가 종로 2가 기독교서회 빌딩에서 목사님들의 회의에 참석하고 온다고 전해라." 하셨다. 그때 청년이 아버지를 데리고 간 것이 마지막이었다.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기 십여 일 전 어머니는 정치보위부에서 교인 명부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두세 번 받고, 여전도회장 이옥순 집사(세브란스병원 장익진 박사 부인)에게 명단을 주어 대필시켜 교인 명단 봉투를 들고 북아현동에 있는 적산가옥에 붙어 있는 간판을 찾아 들어가셨다. 엄마는 열 살인 나와 여덟 살인 동생에게 문 밖에서 놀며 기다리라 하시면서, 해가 져 어두워지면 먼저 집에 가라고 하셨다. 우리는 길 건너편에서 엄마가 언제 나오시나 한참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한 시간쯤 지나 파란 대문을 열고 엄마가 나오시며 우리 둘을 양팔로 꼭 끌어안고 눈시울을 붉히셨다. 엄마는 우리를 데리고 언덕 아래 동양극장을 지나 힘차고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도착했다.

엄마는 어쩌면 아버지처럼 오늘 집에 못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염려로 우리 형제를 데리고 가셨나 보다.

세 형님들은 인민군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갔고, 중학교 3학년이었던 작은 형은 남대문시장에 나가 떠돌이 장사를 하며 살았다. 아버지가 없는 집, 대학 다니는 형들은 인민군 모병을 피해 남쪽 국군이 있는 지대로 피난 갔다.

엄마는 아버지와 함께 서울에서 사실 때, 주일예배 중 인민군 장교가 들어와 아버지의 설교를 메모하고 면담하던 일을 기억하며 불안해하셨다.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일본 순경이 찾아와 아버지의 성경과 일기장을 압수해 간 후 감옥에 수감되었던 일, 또 팔로군과 장개석군이 싸울 때 혼쭐이 났던 일, 그리고 8·15 해방 후 장개석군이 밀리고 팔로군이 승승장구할 때 어머님은 만주가 공산화되기 전에 조국 한국으로 나가자고 하셨다. 아버지는 중국인들이 일본인들을 마구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나서서, 성난 중국인을 다독이며 기죽은 일본인들을 고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셨다. 아버지는 일본의 탄압도 없어지고 만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지시며, 신경(장춘) 입선정교회 교인을 두고 나만 살려고 한국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여 어머니와 많은 갈등이 있었다. 급기야 교인들이 모두 한국으로 나가면 아버지도 나가시겠다고 동의하셨고, 어머니는 교인들의 집을 일일이 심방하며 제직회에서 만장일치로 목사님을 모시고 떠나기로 결정했다. 서울에 도착해 만주에 사는 조선족 교민을 위해 세운 교회가 서소문교회이다.

서울의 교회들은 만주에서 해방과 더불어 건너온 조선족을 환영하지 않았다. 6·25 동란 중 많은 교회는 목사들이 피난 가고 예배가 중지되었다. 특히 이북에서 공산당을 피해온 목사들은 대부분 피난 갔다. 서소문교회 예배에는 영락교회와 정동제일교회 교인들이 참석했다. 자기 교회에는 예배가 없다는 것이다.

몇 번은 정치보위부 요원과 기독교연맹에서 사람을 보내 아버지를 찾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우리 어린 형제를 흑석동 감리교 여전도사인 큰어머니 김연자 전도사님 댁으로 피신시켰다. 그 교회는 민가에 인접한 산 언저리에 있었다. 그러나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로 몇 주 머물다가, 그 다음에는 장충동 적산가옥에 사는 고모님 댁으로 피난 갔다. 하지만 역시 반장의 신고로 인해 그 이후 아버지는 집에 계시게 되었다.

한번은 통장이 김일성과 스탈린 초상화를 가지고 와서 교회당 안 강대상 위에 걸라고 했다. 아버지는 통장에게 대판 호통을 치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통장은 정치보위부 장교가 올 테니 이야기하라고 했다. 정치보위부 장교는 만주 간도성 용정 출신의 함경도 사람으로, 용정 명동중학교 동문이라 하였다.

아버지는 인민군 장교에게 부드럽게 말하다가도 강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 기독교 교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가 신봉하는 십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였고, 교회당 안에는 사진이나 조각을 두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과 십자가만 상징적으로 둡니다." 아버지는 함경도 사투리를 강하게 쓰며 옛 용정의 정취를 풍기는 언변을 펼치셨다.

인민군 장교는 "북조선의 교회들은 다 수령님의 사진과 스탈린 동지의 초상을 걸고 예배합니다. 서울의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자, 아버지는 웃으며 "그건 잘못된 것이고 몰라서 그런 겁니다." 라고 하셨다. 그 후 교회 건물 밖, 동네 아파트 출입구가 닿는 곳에 걸기로 했다. "조그만 교회당 안에 초상화가 있는 것보다, 교회당 밖 사람들이 드나드는 건물에 걸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되니 좋지 않소." 정치보위부 요원은 긍정했다. 그 심각한 순간, 성령님의 강권적인 지혜로 교회당에 걸려는 우상을 거부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엄마에게 감사의 말씀을 하셨다.

9·28 이후 국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들려오는 이야기는, 공산당들이 이북에서 시행하던 것처럼 서울의 기독교인을 잡아 정치수용소로 보내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소문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시를 완전히 공산화하기 위해 기독교 말살 정책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처음엔 교회 예배를 형식적으로 허용했지만, 나중에는 교회를 반동으로 몰아 교회당 건물을 빼앗아 정치보위국 사무실이나 공산당 선전 건물로 바꾸었다. 산정현교회와 조만식 장로 등 수많은 이들이 총살당하거나 감옥에 수감되었다.

북한에 오늘날 옛 교회가 하나라도 존재하는가? 목사님들과 장로, 집사, 교인들이 살아남았는가? 모두 처형되지 않았으면 정치수용소에 들어가 병들어 죽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 유물사관과 맞지 않는다. 왜 신앙인들이 고향과 일터와 가족과 교회를 두고 남한으로 피난 왔는가? 살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을 침입해 첫 번째로 남한의 엘리트를 구금하고 북으로 납치해, 말을 듣고 전향하면 써먹다가 모두 죽여 버렸다. 공산당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 한국 교회는 알아야 한다. 공산당은 교회를 제일 미워하고, 목사와 신자를 죽이려 한다.

6·25 당시 서울 시가지의 범위는 4대문 안팎이었고, 장로교·감리교·성결교를 합해 약 100여 교회가 있었다. 그때 서울에서 북한으로 납치되어 순교한 목사님들은 다음과 같다.

장로교: 김동철 목사(서소문교회), 안길선 목사(신당동교회), 김예진 목사(후암교회), 김영주 목사(새문안교회), 허은 목사(해방촌교회), 주재명 목사(서교동교회), 박상권 목사(서대문형무소), 감리교: 양주삼 총리(종교교회), 유세근 목사(독립문교회), 성결교: 최석모 목사, 박현명 목사(총회장), 김유현 목사, 신학교 교수: 이건 목사(서울신학대), 송창근 목사(한신대), 남궁혁 목사(장신대)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기록한 것이지만, 이 밖에도 더 많은 분이 계시리라 믿는다. 압록강 연안 만포 부근에서 종교인 60명을 분리 수용하였고, 나의 아버지 김동철 목사는 가장 먼저 순교하셨다고 북한 간첩 오기완이 자수하여 『동아일보』에 실린 「아오지의 한」에 기록되어 있다.

최/재/홍/칼/럼

시그널(SIGNAL)

최재홍 목사
한기총미주총회 사무총장
글로발 리더십아카데미 대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단어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대부분이 시그널의 상호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맺어지는 모든 관계의 시작이 바로 시그널입니다. 시그널은 '일정한 부호, 표지, 소리, 몸짓 따위로 특정한 내용 또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데 쓰는 부호'를 시그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시그널은 앞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암시와 징후와 상징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야구선수인 투수와 포수 그리고 감독들의 화려한 몸짓입니다. 그 동작 속에서 작전지시가 이루어지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상대방에게 패배할수도 있지만 서로의 신호 관계가 좋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들만의 시그널이 작동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이가 갈라져서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한 이유는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같았는데 서로의 신호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다투고 틀어지는 이유는 서로의 시그널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르면서 자신의 신호를 너무 강하게 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고양이와 강아지의 시그널이 서로 다릅니다. 기쁘고 반가울 때에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고 세우지만 고양이는 꼬리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긴장하고 불안할 때에 강아지는 꼬리를 내리고 감춥니다. 반대로 고양이는 꼬리를 치켜 세웁니다. 이러니 서로 으르렁거리고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시그널은 생명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호등입니다. 초록색과 빨강색을 구별 못하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낙하산을 타고 강하할 때에도 공중에서 낙하산끼리 서로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두 낙하산이 엉키지 않도록 우측으로 회피기동을 하라고 훈련을 받습니다. 서로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시그널입니다.

현대사회를 형성하는 SNS 계정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모티콘이 그것입니다. 안부를 묻고 의사를 표현하는 소통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상대방의 관심정도라든가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발송된 메시지에 하트 표시라든지, 마크 표시라든지 아니면 엄지척 이모티콘을 받을 때에 상대방의 마음이나 관심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 때문에 서로 싸움도 하고 질투를 느껴서 삶을 포기하는 사고를 유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그널에 예민해져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건강한 사회는 건강하고 안전을 지키려는 시그널이 많이 있습니다. 혼잡스럽고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형선박이든 항공기이든 시그널을 통해서 안전한 길로 다닐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교훈과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기름을 붓기도 하고, 돌을 주어다가 세우기도 하고, 특별한 이름을 만들어서 지명으로 삼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때가 되면 후손들이 그 날과 장소를 기억하고 절기로 삼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시그널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시그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시그널은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혹시 과부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보내는 신호가 너무 약해져 있지는 않을까요? 서로 다른 신호로 변해서 오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솔직하게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그널을 보고 듣고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무척 사랑해, 너는 내 자녀란다! 요즘 많이 외롭지? 힘든 일도 많고? 속상한 일들이 있지?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지? 억울하고 맘대로 안되어서 힘들어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단다. 힘내라! '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대하고 간절함으로 기다리십시오. 꼭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확신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과의 무너진 거룩한 시그널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거룩한 시그널은 우리의 생존확률을 높이고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박/효/숙/칼/럼

나답게 사는 힘

박효숙 교수
가정사역자/목회상담학박사

젊은 시절의 나는 늘 가득 찬 하루로 나를 증명하려 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해야 할 일로 하루를 빼곡히 채우고, 모든 일을 마친 뒤에야 "오늘도 잘 살았네!"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쁘게 달려온 시간들은 내 몸과 마음을 점점 지치게 했고, 병원 신세를 지고서야 멈출 수 있었다.

그때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 믿었다.

열심이 곧 충심이라 믿었고, ' 노동이 곧 기도'라 여기며 쉼 없는 삶이 곧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편하게 사는 것은 세속적이라 여겨, TV 드라마 한 편조차 마음 편히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아무도 나에게 '열심히 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할 일도 많지 않았다.

처음엔 당황했고,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우울했다. 하지만 그 방황의 끝에서 알게 되었다.

편안함은 죄가 아니며, 게으름도 아니라는 것을. 그러다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다. 마음의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니, 나는 스스로에게조차 불필요한 힘을 주며 살아왔다는 것을.

"열심히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에 묶여 내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편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힘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분별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겠다는 용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래전 이야기다.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 공부를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녔는데, 캠퍼스 옆에 골프장이 있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골프장에서 한가롭게 공을 치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 당시 골프를 칠 줄도 몰랐지만, 그들의 여유가 어쩐지 부럽던지.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저런 한가함을 누릴 수 있겠지." 하며 울컥 슬퍼졌다. 그 순간, 내 안에 묻어두었던 숨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나를 단단히 붙들던 '열심'이 이제는 숨 쉬고 싶다고 외치고 있다는 것을. 숨 쉬고 싶은 마음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여유를 갖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려주는 나만의 알람이다. 몸과 마음이 함께 달려오느라 숨이 찬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가끔은 좀 쉬어가도 괜찮아. 이 시간이 너의 삶을 더 풍성하게 지켜줄 거야."

그 순간 나는 알게 되었다. 안식은 게으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안식과 여유가 바로 나를 지키는 힘이며, 내일을 살아가는 에너지인 것을 알게 된 덕분이다.

잠깐 숨을 고르고 자신을 들여다본다. 나의 편안함의 기준은 무엇일까?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속도는?

삶은 우리에게 각자의 몫의 책임과 과제를 주지만, 진정한 편안함은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보고 회복하려는 의식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인다. 하루의 에너지를 70%만 쓰고, 나머지 30%는 여유와 돌발 상황을 위해 남겨둔다면, '편안하게 사는 삶'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키워본다.

열심히 달리다 잠시 멈추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더 오래 달리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며,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세월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성/국/칼/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롬과 죄가 있는곳 나 비록 여기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주여 인도하소서

내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배/성/현/칼/럼

청암 배성현 목사
예수아샬롬공동체

고독이 손잡고

꿈 속에서
사이 좁히려다
망신 당했다

어떤 나무와 꽃도
겹친 것 없이
홀로 선 고독

고독의 거리
한뼘 반

안으로 감긴
줄자의 고독

백날 밤
꼴딱 세운
새 한마리

고독 독 독 독
고 고 고 고
아침 깨워 줄넘기 한다

배/임/순/칼/럼

배임순 목사
도르가의집 대표

모든 것은 축복이다

그날의 슬픈 눈물이 나의 죄를 씻었다.

그날의 시련이 나를 성숙으로 이끌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했고
그날에 사랑을 잃었기에
지금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날의 아픈가슴으로 인해
지금 나는 행복을 노래하고
그날, 팔이 뿌러졌기에
다리를 다치지 않은것에 감사하며
성한 두 다리로 자유의 춤을 춘다.

그날의 고통이 나를 연단시켜
내 삶의 모서리를 둥글게 하고
그 날에 금이 간 내 마음은
고통을 이겨낼 단단한 가슴이 된다 .

가끔은 용서할 줄도 알고
가끔은 포기할 줄도 알고
때로는 침묵할 줄도 알고
그것 또한 지나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은 축복이다
홀로의 쓸쓸함이 행복을 만들고
함께라서 누리는 즐거움
사랑도 이별도 기쁨도 슬픔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시련
실패의 자리에서도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이 모든것은 가슴벅차 오르는 축복이 된다.

한/준/희/칼/럼

오상아(吾喪我)

한준희 목사
뉴욕성원장로교회 담임

1980년 초, 누군가 선물로 준 책 한 권이 기억난다. 당시 베스트셀러가 된 이문열 씨의 소설 『사람의 아들』이었다. 책을 처음 받고 첫 장을 여는 순간 "나는 죽었다. 그러므로 난 살았다." 이 한 문장이 그 책을 미친 듯이 읽게 된 동기가 된 것 같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 소설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된 것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과 자신이 다시 살았다는 의미가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목사로서 로마서에서 밝힌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연합한 자가 되었기에 그의 부활하심에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이 고백내가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은 오직 예수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믿고 살아왔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나는 죽었다. 그러므로 살았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들리지는 않는 문장이었다.

그런데 언젠가 장자의 『제물론(齊物論)』에 나오는 오상아(吾喪我)라는 말을 접하면서, 새삼스럽게 "나는 죽었다. 그러므로 살았다."는 말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상아에 대한 글을 심도 있게 읽고 또 읽어 보았다.

오상아(吾喪我), 직역하면 '내가 나를 스스로 장사 지낸다'는 말이다. 나는 지금까지 고인이 된 많은 분을 장사 지내드렸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세상으로 가셨기에 그분들의 장례를 정중하게 치러드렸다. 그런데 오상아(吾喪我)? 내가 나를 장사 지낸다? 참 신비한 문장이다.

내가 남을 장사 지내드렸다는 것은 고인이 된 그분은 다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뜻인데, 내가 나를 장사 지냈다면 나 역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던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홍해를 가르고 건너갔다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나는 죽어 장사되었다. 누구와 함께 죽었는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다면 나 역시 다시 산 자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죽고 다시 산다는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어야 마땅한 것 아니던가.

목사가 되어서도 그때 그 책 『사람의 아들』에서 나온 문장을 뼛속 깊이 새겨 두었다. "난 이제 죽었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것이 나를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한 동기가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태평양을 건넜다. 즉 상징적으로 홍해를 건너 미국으로 왔다. 목사가 되기 전의 삶이 아닌, 목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태평양에서 나는 죽었고, 미국에서 다시 사는 삶이 된 것이다. 이것이 오상아(吾喪我)이다.

그런데 목회가 어려워지고 아울러 삶 자체가 흔들리면서 오상아(吾喪我)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다시 돌아가야만 살 수 있다는 미련함이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죽은 몸으로 장사된 내가 다시 산 것이다.

한국으로 가려 하니 갈 수 없는 죽은 몸이라는 현실이 엄습했다. 단돈 1불이 없으니 한 걸음도 문 앞을 나설 수 없는 몸이 되었다. 동료 목사의 자녀 결혼식에도 못 갔다. 장례 예배에도 갈 수가 없었다. 사람 관계도 돈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끊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 관계가 끊어지니 이미 사회적으로 죽었음을 실감했다. 그렇게 죽었다면 당연히 장사되어야 할 텐데, 죽었다고 고백하면서도 다시 살아서 현실을 이겨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왔던가.

목사가 되면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종은 주인에 의해 모든 게 결정된다.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내야 하고, 굶으라면 굶어야 한다. 그게 종의 자세다. 그런데 주인 허락 없이 먹을 것을 훔친다든가, 일이 힘들다고 마음대로 낮잠을 잔다든가 한다면 이미 종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된 자가 되듯, 목회가 힘들다고 종의 사슬을 끊어 버린다면 종으로 살아야 할 존재가 다시 주인이 되겠다는 망상 아니겠는가.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 수십 년을 목회하고 은퇴한 목사들은 다시 오상아(吾喪我)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은혜로 인해 살아왔던 모든 것을 또다시 장사 지내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순교자의 길을 가야 한다. 목회 40년이 나의 훈장이 되고 내 이력이 된다면 결단코 다시 사는 삶은 없을 것이다.

다 버려야 한다. 다 무덤에 장사 지내고,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진정한 오상아가 되는 것 아닌가. 목회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사라지지 않는 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진정한 목사의 자세가 아니던가. 은퇴는 이제 나를 장사 지내고 또 다른 새로운 세계로 가라는 소명이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다.

적잖은 목사들이 죽고 다시 사는 말씀의 의미는 잘 알고 있고 또 죽어서 다시 사는 삶을 설교는 하지만, 자신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도 죽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분노와 못된 성품을 드러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가. 설교는 설교로 끝나고 삶은 별도인 것 같다. 아무리 외쳐도 자기 고집과 생각은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교계 일을 한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자아가 다시 살아나 끊임없이 교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현실을 보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오상아의 삶이 성경 말씀을 능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늘 씁쓸하다.

"나는 죽었다. 그러므로 난 살았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됨의 존재를 가졌다면, 현실의 삶에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오상아(吾喪我)가 실현되는 삶이 진정한 목사의 길이 아닌가 여겨진다.

오상아를 실현해 본 사람은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 같이 사는 삶도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14)

시로쓰는QT

"이름"

로마서 16:1-16

윤 석 목사
(서충주한빛교회)

세상이 알아주는 이름은
부자요 권력자요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알아주는 이름은
겸손이요 섬김이요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

바울이 추천한 그 이름
주 안에서 합당한 뵈뵈,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아의 첫 열매 에베네도,
수고한 마리아,
나깃수 집안의 몇몇 노예,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아들 루포,
모두 주안에서 충성된 자들이라

주님이 구름타고 오실 때
나를 알아보실까
생명책의 명단에
나의 이름도 들어있을까
울긋불긋하게 걸어온 이름들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차콜온돌

charcoal ondol 친환경탄소복합소재

전통온돌의 재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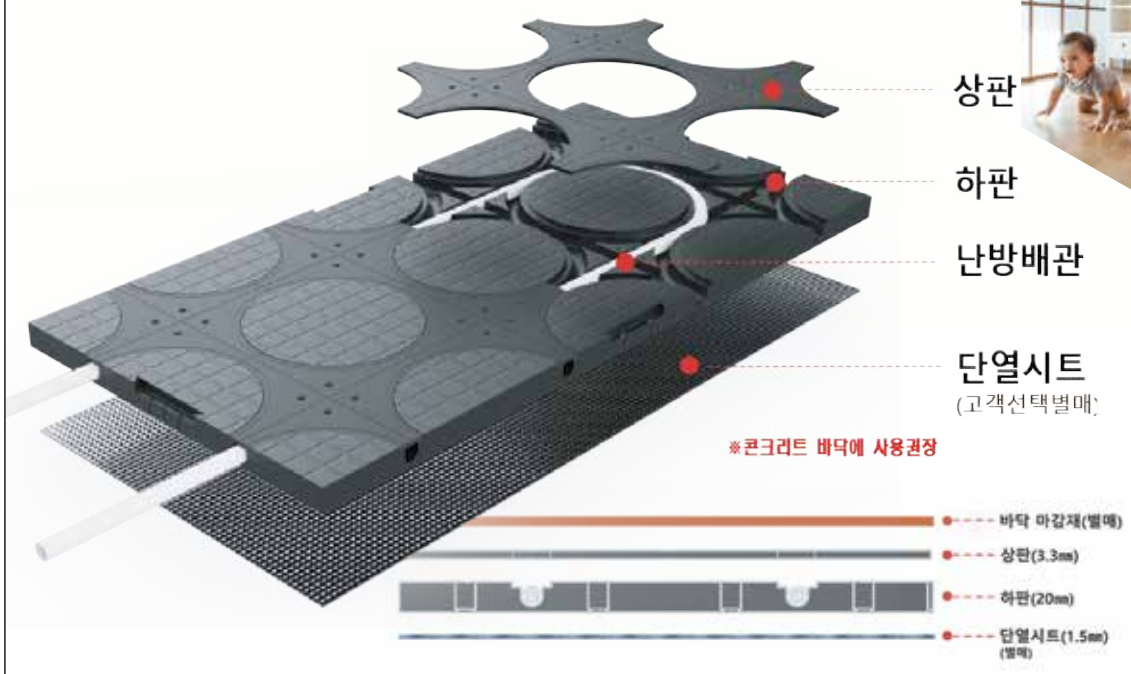
친환경 탄소복합 신소재 기능성 하이브리드 온돌방식

"자고나면 아침이 거뜬한 건강온돌 난방"

문의 및 상담
516-507-8158(Oscar Yom)
917-628-6139

www.us.srotech.com

기능성 하이브리드 온돌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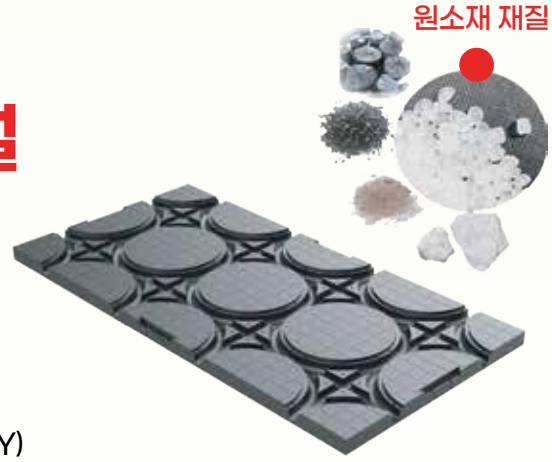
차콜온돌이란?

한국 전통의 구들장 난방을 현대식으로 재현한 온돌 난방 시스템

차콜온돌은 천연광물로 만든 친환경 탄소소재를 사용하여, 몸에 좋은 원적외선을 발산하며 공기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돌의 따뜻함과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옛날 구들장의 장점을 살려 만든 이 차콜온돌은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차콜온돌 패널

원소재 재질



- 패널간 차별화된 결합방식 설계로 소음·들뜸 없는 견고함
- 기존 난방방식의 단점 해소로 획기적인 건식온수 실현
- 퍼즐식 구조로 쉽고 빠른 설치(DIY)

차콜온돌이 주목받는 이유

01 숯(Charcoal)의 효능과 천연광물질로 건강에 유익

02 재사용이 가능한 리사이클 소재

03 축열성, 복사열이 우수

04 높은 강도로 내구성이 우수

05 누구나 쉽게 셀프시공(DIY) 가능

06 보수가 쉽고 반영구적 사용 가능

07 꿀렁거림 및 소음이 없음

08 모든 마감재를 자유롭게 사용가능

김/명/욱/칼/럼

평범한 곳에 진리가 있다

김명욱 목사
기독뉴스 대표

평범한 곳에 진리가 있다. 평범한 곳에 도가 있다. 이 말은 평상심이 가장 진리와 가까운 것의 하나라고 말할 때 쓰는 예로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세상이란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 포함 속에는 우주도 있다. 별들의 세계도 있다. 태양도 있다. 달도 있다. 지구도 있다. 지구 안의 모든 생물과 모든 동물과 모든 생명들이 다 포함된다. 이와 같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세상에 포함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세상엔 포함된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정신적인 세계를 말한다. 만지지도, 볼 수도 없는 정신의 세계가 있다. 정신적인 세계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고 생각의 세계 혹은 마음의 세계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가늠할 수는 없어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말한다.

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는 세계도 이 세상엔 포함된다. 그 세상은 미생물들의 세계이다. 그 세상은 미세한 세포까지도 포함한다. 그 세계는 우리 몸 안에 수십억, 수천억의 세포군을 형성하며 또 다른 세계와 우리의 세계를 연결시켜 준다. 그들이 우리 몸속에 서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은 몸의 구실을 할 수 없다.

이같이 우리의 몸이란 수십, 수백 수천억의 세포들이 집합돼 연결고리를 만들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살게 하며 세상 안에 존재하게 한다. 그럼, 평범은 어떤 것을 말하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우주와 정신, 미시의 세계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평의 세계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생, 혹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가.

그 평범은 인간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뜻한다. 평범을 다른 말로 풀이한다면 특별한 것이 아닌 보통을 말한다. 보통 혹은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사는 그 모습 속에서 그저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의 '그냥'의 삶을 말한다.

그럼 '그냥'의 삶이란 또 무엇인가. 주어진 대로, 맡겨진 대로, 있는 그대로, 복잡하고도 엄청나게 크면서도 미묘한 세상이지만 그냥 그대로 하루하루를 욕심 없이 살아가는 생과 삶을, 평범한 삶 혹은 보통의 삶 내지는 '그냥'의 생이라고 한다면 맞지 않을까.

이 말은, 욕심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욕심이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욕심이란 것이 어떨 때에는 아주 큰 지렛대의 역할을 하여 삶을 보통에서 특별로 인도하는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삶은 특별에서 다시 보통으로 떨어지지 못한 채 특별한 삶의 마감을 서둘러 가져오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보통사람으로 태어났으나 삶의 과정을 통해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된 후, 죽음을 맞이할 때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부각되어,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크게 획을 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애를 예로 들 수 있다.

장주가 〈장자〉를 통해 말하는 도 혹은 진리는 배설물에도 존재한다고 한다. 배설물에서 하늘까지, 도 혹은 진리는 어는 한 곳도 없는 곳이 없다고 한다. 이 도, 즉 진리와 가장 가까운 것 중의 하나가 평상심이라고 한다. 평상심이란 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말하지 않을까. 욕심 없는 마음을 평상심이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평범한 사람의 가슴에 내려앉을 때 그 사람은 욕심 부리지 않게 되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또 아닐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특별한 것들도 크게 작용하지만, 이 세상을 세상답게 만들어 가는 것은 평범 속에서 평상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통의 삶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이 세상은, 세상으로 지탱되며 유지되고 움직여지는 것은 아닐까.

가을이다. 낙엽이 뒹군다. 뒹구는 낙엽을 무심하게 밟고 지나는 발길들. 떨어져 흐트러지는 낙엽 속에 진리가 담겨 있다면 그 진리는 보통의 진리일 게다. 언젠가는 우리도 낙엽처럼 떨어져 흐트러진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 말이다. 우리는 모두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세상 밖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 밖을 살아가듯 살아갈 수는 없을까. 무욕으로, 보통으로, 평범한 곳에 진리가 있음을 알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을 게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통의 삶, 평범한 생을 허락하시옵소서.

기독뉴스
www.kidoknews.net
NO. 191 / October 30, 2025

CZONE

기독뉴스는
미주기독교미디어 그룹(씨존)이
뉴욕에서 발행하는 주간 기독신문입니다.

KIDOKNEWS
IS A KOREAN CHRISTIAN
WEEKLY NEWSPAPER IN NEW YORK
PUBLISHED BY CZONE

발 행 인 | 문석진
대 표 | 김명욱
편집국장 | 임병남
취재국장 | 위화조
편집디자인 | 이제니

기 자 | 구라회

LA 지사장 | 신정현

한국지사

이 사 장 | 정도영
지사장 및 기자 | 이창배
기 자 | 이주애

〈OFFICE〉
170-04 Northern BLVD 2F Flushing, NY 11358
Mailing Address:
PO Box 580445 Flushing, NY 11358

T. 718-414-4848
E-mail: KidoknewsNY@gmail.com

스본스도 무료체험

자가치유 회복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약도 주사도 없이 창조주가 주신 회복 능력을 일깨우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목·머리·무릎·발목·허리 통증, 손발 저림, 근력 저하, 어지럼,
난청, 시야 흐림, 만성피로까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가치유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스본스도 체험 후기 →
"7년 만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지팡이 없이 걷고, 진통제를 끊었습니다."
"뿌옇던 시야가 밝아지고 별이 보였습니다!"

무료체험일: 11월 11일(화), 11월 18일(화), 11월25일(화)
시간: 오전 9시30분 - 오후 12시30분
인원: 선착순 3명(사전예약자에 한함)
비용: 무료, 희망시 기부 가능(KSS체험 운영에 사용합니다)
복장: 상의: 면 소재 티셔츠
하의: 면 소재 무릎 길이 반바지

신청 및 문의: 718-353-2537 (문필 원장) www.nyKSS.com

제일의 섬김과 제일의 가격

제일장의사

— First Funeral Home —

여러분의 귀한 사랑 과 추억을 함께 하겠습니다
유가족이 원하시는 어떤 장소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플러싱
노던192가
강한가족의료원 건너편

리틀넥
노던 253가
체이스은행 건너편

롱아일랜드
1529 Hempstead
Turnpike, Elmont, NY 11003

24HRS 718-404-5252(오피스) | 718-249-3123(C)

Licensed Funeral Director 한응호 장례의 관한 모든 절차를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24시간 상담사무실 오픈
45-14 Springfield Blvd, Bayside, NY 11361
(베이사이드 삼원각 건너편)

1529 Hempstead Turnpike, Elmont, NY 11003 (516)-305-4714 firstfuneralhome@gmail.com

뉴욕어린양교회

담임목사 박윤선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EM Service 3부: 오후 2:30
영어학생예배 주일: 오전 11:30
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9:00
새벽예배: 매일 오전 5:30

69-38 47th Ave Woodside, NY 11377
718-899-8309 | www.nylfc.org

뉴욕예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훈

주일대예배1부: 오전 7:30
주일대예배2부: 오전 9:00
주일대예배3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30
영어예배: 오후 1:00
수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월~토):매일 오전 5:30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516-938-0383 | www.yalechurch.org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현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EM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347-502-2571 | www.nycdchurch.com

뉴욕한인중앙교회

담임목사 전진은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전 6: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32-71 41st., L.I.C, NY 11103
718-956-3716 | www.kccny.net

뉴욕수정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EM Service3부: 오후 2:00
중국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유초등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EM기도회: 오후 8:00

2567 College Point Blvd College Point, NY 11354
718-461-9800 | www.nysoojung.org

뉴욕평화교회

담임목사 임병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2:00
수요예배: 오후 8:30
토요새벽기도: 오전 6:00

203-20 Rocky Hill Rd Bayside, NY 11361
718-962-5131 | www.nypeacechurch.net

뉴욕만나교회

담임목사 정상철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00
주일 소그룹: 오후 1:00
새벽기도회: 매일오전 6:00

170-0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917-392-7063 | www.nymanna.org

하은교회

담임목사 거스 김

하은1부예배: 오전 8:00
하은2부예배: 오전 10:00
그레이스예배(영어) 오후 12:00
주일학교: 오전 10:0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수요기도회: 오후 8:30

201-03 29th Ave Bayside, NY 11360
718-352-1816 | www.haeunchurch.org

뉴저지세빛교회

담임목사 김귀안

주일예배: 오전 11시
어린이 예배: 오전 11시
EM/Youth예배:오전 11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금)
토요새벽기도: 오전 6시

128 Stirling Rd, Warren, NJ 07059
908-350-3835 | www.sebitchurch.org

뉴욕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박희근

주일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 & 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참여가능
(Zoom #246 507 6432)

21-01 124th St College Point, NY 11356
917-254-0887 | heepark91@yahoo.com

뉴욕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이준형

1부 예배: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3부 예배: 오후 1:30
오후 예배: 오후 3:00
삼일 기도회: 수 오후 8:30

7618 4th Ave Brooklyn, NY 11209
718-833-4146 | www.ukcny.org

뉴욕모자이크교회

담임목사 장동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어린이예배: 오전 10:30
청소년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155-14 35th Ave. Flushing, NY 11354
718-352-6962(NYMC)

뉴욕신광교회

담임목사 강주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대학부예배: 오후 2:00
수요말씀강해: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금)
새벽예배(월-토): 오전 5:45

33-55 Bell Blvd., Bayside, NY 11361
718-357-3355 | www.skcny.org

뉴욕빌립보교회

담임목사 박희열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기도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월-금): 오전 6:00

154-02 35th Avenue Flushing, NY 11354
718-358-3200 | 646-413-8577

뉴욕방주교회

담임목사 김천수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학교: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6:30(토)

34-57 Francis Lewis Blvd Flushing, NY 11358
718-812-5081 | www.nyark.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718-357-9199 | www.moakyang.org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그루터기청년예배: 오후 2: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0:30,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영어예배: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오전 9:30, 오후 2:30
러시아어예배: 오전 8:30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 kapcq.org

제자삼는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1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오전 11:00
한글학교: 오전 9:30
새가정반: 오후 1:00
영어예배(English Worship): 오후 1:00
금요예배 (Friday Service):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2801 Hillside Ave, New Hyde Park, NY 11040
718-819-8237 / www.dmcofny.org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1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오후 2: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새벽예배(토): 오전 5:30

45-62 211th St Bayside, NY 11361
718-229-0858 / www.nybaysidechurch.com

프라미스교회

담임목사 허연행

장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장년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장년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영어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어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영유아, 유초등부 오전 10:55
중고등부 오전 10:45
힐링캠프 장애우예배 오전 10:55
스패니쉬예배 오전 11:00

130-30 31st Ave., Flushing, NY 11354
718-321-7800 | www.Promiseny.com

뉴욕주는교회

담임목사 김연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오후 12:00
EM: 오후 12:30
유년주일학교: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토요한국학교 봄,가을 매주 토요일

145-15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917-770-5080 | 718-352-1603 | www.givingchurch.net

한인동산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풍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사랑의 교실(장애인)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토): 오전5:45
수요예배: 오후 8:30

100 Herrmann Place Yonkers, NY 10710
914-961-9250 | www.nydongsan.com

뉴욕십자가교회

담임목사 문신언

장년주일예배: 오후 1:00
(동시통역,온라인동시)
영아부/유치부/유초등부: 오후 1:00
Youth & EM: 오후 1:00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1:00(동시통역)

58-06 Springfield Blvd, Oakland Gadens, NY11364(하크네시야교회당)
917-603-6086 | www.thecrosschurch.org

NJ복된교회

담임목사 신철웅

새벽예배: 오전 6:00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128 W Demarest Ave Englewood, NJ 07631
201-227-9191 | www.blessingcc.org

(NJ)푸른초장교회

담임목사 김종윤

주 일 예 배 : 오후 12:30
목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 벽 기 도 회: 화-토 오전 6:00

118 Chadwick Rd, Teaneck, NJ 07666
(홀리네임병원 뒷편)
201-509-6166 | jyk3333@gmail.com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일1부예배: 오전 7:15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청년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오후 2: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5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718-762-5756 | www.hyoshin.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김바나바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청년예배: 오후 1:30
장애인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EM): 오전 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5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718-672-1150 | www.kcqny.org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낮예배: 오전11:00
주일학교: 오전11:00
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45-50 162 St. Flushing NY 11358
718-637-1470

뉴저지 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상천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451 Gran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201-592-6004

뉴저지 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금요기도회(매월 1,3주)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5:40

309state St Hackensack, NJ 07601
201-342-9194 | www.sungdochurch.org

뉴욕그레잇넥교회

담임목사 양민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EM(청년부): 오후 2: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715 Northern Blvd. Great Neck, NY 11021
516-466-8063 | 516-570-6371

가족상담교육센터

Family Counseling & Education Center

소장 배임순

224 Main St #203 Metuchen, NJ 08840
732-213-7070

가나교회

담임목사 안병권

주일예배 오후 12:00
EM 예배 오후 12:00
새벽 예배 오전 5:30 (목-토)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310-986-9797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3부:** 오후 1시30분
주일학교(영유아, 유 초등부, 중 고등부)오전 11시
토요새벽연합예배: 오후 6시30분(월-금)오전9시(토)
한국학교: 오전9시(토) **Youth Orchestra**(주일 오후 1:30)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562-691-0691 | www.nachimban.org

뉴욕로즐린한인교회

담임목사 김 사무엘

주일예배 오전 10시 45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야배 오후 8시 45분
새벽예배 (월-금) 오전 5시 45분
(주일) 오전 8시 30분

108 Warner Ave, Roslyn Hts, NY 11577
516-317-3166 | samyjeby@hotmail.com

뉴욕참교회

담임목사 문덕연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중보기도회** 오후 8:30 **EM예배** 오후 2:2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199-03 32nd Ave, Flushing, NY 11358
718-575-1142 | www.chamchurchny.org

뉴욕충신교회

담임목사 안재현

주일예배 1부 오전8시, 2부 오전9시, 3부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시
중보기도회(매일)오후 9시
수요기도회 오후 시
금요찬양/심야기도회(1,2세합동)오후 9시

153-11 Barclay Ave, Flushing, NY 11355
718-359-0040 | www.choongsyn.net

뉴욕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성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30분 **2부** 오전 11시
삼일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기도회 오후9시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50분
산기도 매주 (화) 오전 9시 30분

149-03 Hawthorne Ave, Flushing, NY 11355
718-321-8581 | nydavid@hanmail.net

뉴욕말씀장로교회

담임목사 심재철

주일예배 오후 12시 30분
청소년예배 오후 12시 30분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30분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432 Lakeville Rd. Lake Success, NY 11042
516-708-1517 | 917-364-6923 | revjchim@hotmail.com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주일예배 : 1부 8:30AM **2부** 11:30AM
수요예배: 10:30AM **금요찬양기도회:** 8PM
새벽기도회 : 05:30AM (월-토)
EM, 유초등부: 1:30PM(주일)
성경대학 : 주일 1:30PM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310-515-1191 | 213-447-3118 | www.sunghwachurch.org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새벽예배: 월~토 오전 6시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 www.junimchurch.com
310-325-4020 | 310-325-4025(F) | jscoffice01@gmail.com

미주복음주의 장로회 총회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 Evangelical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EPCA)

총회장 전모세 목사

857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36
213-700-4593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30분
2부 영어예배: 9시45분 **주일3부:** 11시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7시30분
새벽기도회(화-토): 오전6시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213-381-2202, 9231 | 213-381-2535(F) | www.mpcla.org

뉴욕영안교회

담임목사 김경열

주일예배 오전 9시 / 2부 오전11시
토요성경공부(청년)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화-토) 6시
유,초등부(주일) 오전 11시 **수요기도회**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중,고등(주일)** 오전 11시

59-26 Kissena Blvd Flushing, NY 11355
91-963-9356(M) / 917-678-2207(H)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시 30분
주일2부예배 오전 9시
주일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사예배** 오후 8시 30분

188-17 73rd Ave, Fresh Meadows, NY 11366
718-461-7835 | www.nyantioch.com

뉴욕한마음교회

담임목사 정양숙

주일예배 오후12:30 **주일학교** 오후 12: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예배 오후 8:30 | **새벽예배** 오전 5:30

134 I. U. Willets Rd. Albertson, NY 11507
718-309-8200 | www.oneheartchurchny.com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11시
유년주일학교 주일 오전 11시
주일 찬양 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저녁예배 매주(수) 8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시 50분
금요 기도회 매주 (금) 오후 8시 30분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718-358-6225 | www.nygethsemane.org

뉴욕한인제일교회

담임목사 송인규

주일 대예배 오전 11시
대학부, EM 영어예배 오전 11시
주요저녁예배 오후 8시30분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500 S. Broadway, Tarrytown, NY 10591
914-332-7640 | www.fkmc.net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

회장 방동섭 목사

(213)247-2936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

621 S Virgil Ave #455, Los Angeles, CA 90005
213-384-5232 | www.holycityusa.com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박진하 목사

한달에 $30이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며 인생을 바꿀수 있습니다.

P. O. Box 540802. Flushing, NY 11354
917-667-8555 E-mail. breadngospel@gmail. com

사랑장로교회

담임목사 강진식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예배 오후 8시
성경공부(월) 오후 7:30 | **(화)** 오후 2:30,
(수) 오전 10시, **(목)** 오전 9:30, **(토)** 오후 7시

14-1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718-813-3354 | changil2001@hotmail.com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323-737-3009 213-215-8523

에버그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금옥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Sharing Group: 주일 오후3시
청년부 모임: 토요일 낮 12시

208-37 32nd Ave, Bayside, NY 11361
718-614-4565 | www.epcny.org

에벤에셀선교교회

공동담임목사
최창섭, 이재홍

220-16 Union Tumpike, Bayside, NY 11364
718-570-5858(한어권) | 718-766-8625(영어권)

예수생명교회

담임목사 김요셉

주일예배 오전 11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30분

39-03 Little Neck Parkway, Little Neck, NY 11363
516-780-4525 | www.Jesusmylifechurch.org

주향교회

담임목사 김 신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3412W. 4th St. LA, CA 90020
213-383-4951/4952

CMF 선교원

대표 김철민 장로

결혼 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www.cmfm.org | www. godfamily.com
562-483-0191 | 714-493-0191 | 562-684-4422

횃불선교교회

담임목사 하정민

주일예배 오전11시 **찬양예배**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8시 **금요야배** 오후9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145-09 33 Ave, Flushing, NY 11354
347-804-2645 | jungha2645@gmail.com

팔복선교교회

대표 이추실 목사

1045 Old Academy Rd. Fairfield, CT 06824
203-339-1201 | www.yesunimchurch.org

평강교회

담임목사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E-풍요로운 삶(주일) 오전 9:30
화요 3.3.3기도회 매월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TEE-성경을 한눈에(금) 오후 7: 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213-393-9136

퓨리탄개혁신앙선교연구회 (PARMSC)

총재 이완재 박사

1311 N. San Bernando Rd, Unit 107 LA, CA 90065
818-245-0041 | Parac@gmail.com

erom
HEALTH CARE
이롬생식 미동부대리점 (염명재)
제품 문의 및 상담 917-628-6139

MARAH NATURAL

마라내츄럴

추수감사절 특별 사은행사

SAC 칼슘 — 인체 균형을 되찾는 과학

3 개 이상 구매시 10% 할인 + 무료배송 + 특별 사은품 증정

네오셀
뼈와 에너지의 균형
$200
골다공증 예방, 갱년기·갑상선 기능 유지, 호르몬 밸런스 조절 혈액순환 개선, 기립성 저혈압 완화, 어지럼증 및 만성 피로 개선

마라셀
면역 활성과 회복의 시작
$475
체내 독소 제거, 면역체계 활성화, 퇴행성·만성질환 관리 불면·고혈압·당뇨·부정맥·빈혈·신장·간 기능 회복 코로나 후유증 및 각종 암(갑상선·유방·전립선·대장 등) 회복 지원

리카틸
관절과 연골의 재생 에너지
$345
무릎·손가락 관절염, 연골 손상 회복 및 재생 촉진 퇴행성 통증·염증 완화, 관절의 유연성과 강도 향상

덴토소
잇몸에서 턱뼈까지의 견고함
$240
잇몸·치아·치주 조직 강화, 임플란트 전후 구강 회복력 증진 턱뼈 강화 및 인 흡수 촉진으로 치아 뿌리부터 건강 강화

알지셀
뇌신경의 집중력과 평형 유지
$430
뇌신경 칼슘 균형 유지, 호르몬 및 신경전달 기능 강화 알츠하이머·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 예방 및 개선

RECOMMEND

뇌건강
- 알지셀
- 마라셀
- 네오셀

뼈건강
- 네오셀
- 마라셀
- 덴토쏘

11월 한정 프로모션 | 3 개 이상 구입시 10% 할인
구매고객전원: 무료배송(미국 내) + 사은품(한국산 스마트 터치펜) + 2026 탁상캘린더 증정

행사기간: 2025 년 11 월 4 일 ~ 24 일

문의: 917-291-3800 | www.kr.marahnaturalusa.com